
3-9-2012**전도 중심적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 투산영락교회를 중심으로**

Choong Yeol Jang 장충렬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장충렬, "전도 중심적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 투산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2.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CHURCH GROWTH WITH OUTREACH-FOCUSED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UCSON YOUNG-NAK CHURCH

written by

CHOONG YEOL JA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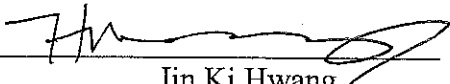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ung Woon Suh



Jin Ki Hwang

March 9, 2012

**CHURCH GROWTH WITH OUTREACH-FOCUSED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UCSON YOUNG-NAK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CHOONG YEOL JANG

MARCH 2012

전도 중심적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

- 투산영락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서 정 운 교수

장 충 렬

2012년 3월

Abstract

Church Growth with Outreach-Focused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ucson Young-Nak Church

Choong Yeol Jang

Doctor of Ministry

2012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t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churches in Korea are facing stagnation in their growth. The problem is not limited to Korea, but extends to immigrant Korean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Observing the local churches in Arizona where the author resides, it is difficult to find ideal church growth with the essence of the teachings of Jesus; the church is lacking vitality and its reason to exis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possible solutions to the above issues, with a focus on the core of Jesus' outreach-focused ministry as well as the church's purpose for existence.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2 presents the rationale for outreach-focused ministry and its theoretical background from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Chapter 3 presents the necessary principles of evangelism. It examines the secular society in which the church exists and the types of unbelievers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minister with a focus on outreach.

Chapter 4 examines continuously growing churches of today that have a mindset of outreach-focused ministry, suggesting that the outreach-focused ministry of Tucson Young-Nak Church applies the universal theory of ideal church growth. Chapter 5 shows the preparatory work necessary for successful outreach-focused ministry and discusses the present programs of Tucson Young-Nak Church, such as the Alpha course, Barnabas Ministry training, and discipleship training.

In chapter 6 we observe the process and outcomes of three core ministries of Tucson Young-Nak Church: a special evangelism event called “Quintuple Evangelism Festival,” evangelism through helping people settle in, and cultural ministry. As a result, this paper intends to encourage and provide a hopeful challenge to today’s churches. The final chapter briefly summarizes the content of previous chapters and the evangelism-oriented ministry of the Tucson Young-Nak Church, through which it seeks to provide a model for a solution to the stagnation of church growth today.

Theological Mentors: Jung Woon Suh, PhD

Jin Ki Hwang, PhD

감사의 글

주님의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목사로서 교회의 정체와 침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21세기를 들어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한 미국교회, 나아가 이민교회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도를 통해 성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풀러신학교의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리조나 사막의 이민교회를 담임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복음전도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보고자 달려왔던 지난 8년의 시간이 작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족한 제자의 목회 사역에 용기와 격려를 해주시고 목회와 선교 신학적 차원에서 보다 폭넓게 사고하도록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서정운 총장님과 언제나 친절과 세밀함으로 논문을 지도해주신 황진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모두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고 좋은 지도를 해주심으로 이렇게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큰 나무와 같이 변함없이 함께 해준 이항성 장로님과 지난 8여년여 동안 담임목회 사역을 통해 본 논문의 원천과 배경이 되어 주고 이 사역에 함께 협력한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논문에 여러모로 도움을 준 김신 목사와 조용호 목사에게도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옆에서 사랑으로 협력하여 준 아내와 기도로 함께 했던 아들 한길이, 사랑하는 딸 한빛이와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사도바울의 승리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사도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12년 3월 장충렬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
제 2 장 전도 중심적 목회의 필요성	4
제 1 절 전도 중심적 목회의 정의	4
제 2 절 전도 중심적 목회의 성서적 근거	6
1. 구약 성서에 암시된 전도	6
가. 모세오경에 암시된 전도	6
나. 역사서에 암시된 전도	7
다. 시가서에 암시된 전도	7
라. 선지서에 암시된 전도	8
2. 신약 성서에 나타난 전도	9
가. 세례 요한의 전도	9
나. 예수님의 전도	10
(1) 예수님의 개별전도와 제자 파송	10
(2) 예수님의 전도 방법	10
다. 제자들의 전도	11
(1) 제자들의 전도 내용	11
(2) 제자들의 전도 방법	12
제 3 장 전도자 및 전도 대상자 이해	14
제 1 절 전도자의 준비	14
1. 전달자(Sender)	14
가. 구원의 확신	14

나. 영적 동정심	15
2. 메시지(Message)로서의 복음	16
3. 효과적인 전달(Media)	17
가. 성령을 의지함	17
나. 효과적인 언어 표현	18
제 2 절 전도대상자 파악	19
1. 세속화된 사회	19
가. 세속화를 촉진한 6가지 사건	19
나. 세속화되어 가는 양상들	20
다. 세속화에 대한 교회의 극단적 대처와 그 영향	21
2. 세속화된 사람	21
3. 불신자들의 유형 이해	23
제 4 장 전도 중심적 목회의 타 교회 사례	24
제 1 절 한국 교회의 사례	24
1. 주안장로교회	24
가. 주안장로교회의 성장의 약사(略史)	24
나. 주안장로교회의 전도 방법	25
(1) 교구별 전도	25
(2) 파이프 생명운동 전도	25
(3) 새 생명 전도단을 통한 전도	26
(4) 개발지구 입주지역 전도법	27
(5) 구역 전도(소그룹 전도)	28
(6) 총동원 전도	28
다. 주안장로교회의 전도 평가	28
2. 사랑의 교회	29
가. 사랑의 교회 성장의 약사(略史)	29
나. 사랑의 교회 전도 방법	30

(1) 대각성 전도 집회	30
(2) 전도 폭발 훈련	30
제 2 절 이민교회의 사례: 토론토 큰빛교회	32
1. 토론토 큰빛교회의 성장의 역사(略史)	32
2. 토론토 큰빛교회의 전도 방법	32
제 5 장 투산영락교회의 전도 중심 목회의 기반 다지기	34
제 1 절 투산영락교회의 성장의 역사(略史)	34
제 2 절 알파 사역	35
1. 전도 중심적 목회에서의 알파 사역의 위치	35
2. 알파 코스는 무엇인가?	36
3. 알파 코스의 사전 준비	37
가. 광고	37
나. 모집	38
4. 알파 코스의 실제	38
가. 장식	38
나. 식사 준비	39
다. 안내 요원	39
라. 선물과 명찰 준비	39
마. 찬양 준비/ 강의 준비	40
바. 강의 내용	40
사. 소그룹 토의	41
5. 알파 성령 수양회	42
6. 알파 코스 간증	43
제 3 절 바나바 사역	43
1. 전도 중심적 목회에서의 바나바 사역의 위치	43
2. 바나바 사역이란 무엇인가?	44
3. 바나바 교육	44

가. 바나바 교육을 위한 준비	44
나. 바나바 교육의 실제	45
다. 수료식	45
4. 바나바 사역의 실제 - 바나바 사역자가 새 가족을 일대일로 돕는 사역	46
가. 새 가족부와의 긴밀한 협력	46
나. 바나바 담당자의 역할	46
다. 새 가족 환영실 운영	46
라. 7주간의 바나바 활동	47
마. 새 가족 환영 행사	47
제 4 절 양육 시스템	48
1. 전도 중심적 목회에서의 양육 시스템의 위치	48
2. 양육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48
3. 양육 시스템의 교육과정	48
가. 비전 클래스	48
(1) 제1단원: 우리의 구원	49
(2) 제2단원: 우리의 선포	49
(3) 제3단원: 우리의 전략	49
(4) 제4단원: 우리의 구조	52
나. 성숙 클래스	53
(1) 제1단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습관	53
(2) 제2단원: 기도의 습관	53
(3) 제3단원: 십일조의 습관	54
(4) 제4단원: 교제의 습관	54
다. 사역 클래스	54
(1) 제1단원: 나의 형상 발견	55
(2) 제2단원: 나의 사역	55
라. 사명 클래스	55
(1) 제1단원: 나의 인생 사명 발견	55

(2) 제2단원: 메시지 나눔	56
(3) 제3단원: 나의 전도 연못에서의 낚시	56
(4) 제4단원: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인	56
제 6 장 투산영락교회의 전도 중심적 목회의 핵심 사역	57
제 1 절 5배가 전도 축제	57
1. 5배가 전도 축제의 의미	57
2. 5배가 전도 축제를 위한 준비	58
가. 전도 중심적 목회를 위해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58
나.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재 확인	60
다. 전 교인이 참여하는 전도	61
3. 5배가 전도 축제의 목표 설정	62
가. 목표 인원 설정	62
나. 5배가 전도 축제의 기간 설정	65
다. 전도 대상자 선정	66
라. 전도와 타겟 지역	68
마. 전도와 핵심 그룹	69
4. 성공적인 5배가 전도 축제를 위한 필요	70
가. 전도의 동기 부여를 위한 설교	70
나. 성공적인 전도를 위한 기도	72
다. 전도자 훈련의 필요	73
라. 간증자의 준비	74
(1) 간증의 중요성	74
(2) 간증의 가치	74
(3) 간증을 나누는 법	75
(4) 간증을 나눌 때 실제적인 고려사항	76
5. 5배가 전도 축제의 실제	76
가. 전도 일정표	76

나. 전도 분위기 조성	78
다. 5배가 전도 축제의 선포	82
라.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 및 제출	82
마. 정기적인 전도 실천	83
바. 개인별 전도의 실제적인 예	84
사. 선포 후 첫 주의 중요성	84
아. 전도 상황 중간 점검	85
자. 전도 간증 집회	85
6. 5배가 전도 축제의 성과	86
가. 적절한 기간의 설정	86
나. 전도 참여 인원의 증가	87
다. 결신자를 통해 본 분석	87
제 2 절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	89
1.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의 의미	89
2. 도움 요청자와의 접촉점 마련을 위한 수단	89
가. 인터넷	90
나. 지역신문이나 방송	91
다. 잡지	91
라. 포스터	92
마. 직접적인 만남	92
3. 정착을 위한 도움의 내용과 전도를 위한 연결점	93
가. 공항 픽업	93
나. 홈스테이	94
다. 아파트 구해 주기	94
라. 휴대폰 개통	95
마. 기타	95
4.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의 성과	95
제 3 절 문화 사역을 통한 전도	96

1. 문화 사역의 필요	96
2. 문화 사역을 위한 준비	98
3. 문화 사역의 시작	98
4. 문화 사역의 성과 및 보완점	99
 제 7 장 결론	100
제 1 절 전도 중심적 목회의 요약과 미비점	100
1. 전도 중심적 목회의 요약	100
2. 전도 중심적 목회 실천의 미비점	102
제 2 절 연구 결과 및 제언	103
 부록	104
 참고 문헌	115
 Vita	120

표 목 차

<표 1> 투산영락교회 전도목표 현황	64
<표 2> 투산영락교회 전도대상자 명단	67
<표 3> 투산영락교회 전도 주요 타겟지역 분포도	69
<표 4>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도기간 중 설교 목록	71
<표 5> 2009년도 5배가 전도축제 일정표	77
<표 6> 개인별 전도 현황표	81
<표 7> 5배가 전도축제의 구호와 주제가	80
<표 8> 5배가 전도 축제를 통한 교인 등록 분석표	88
<표 9>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의 성과표	96

그림 목차

<그림 1> 동심원	52
<그림 2> 목장별 전도현황표	79
<그림 3> 5배가 전도축제 현황판	8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목적

에밀 브루너(Emil Brunner)는 불이 탐으로 존재 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¹⁾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역시 선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선교는 전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회의 사역이며, 선교의 핵심, 심장, 중심이 전도라고 한다.²⁾ 더 나아가 칼 바르트(karl Barth)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거나 죽은 교회라고 단언한다.³⁾ 이렇듯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요, 핵심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로 인해 교회는 침체되고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전형적인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 6%의 교인을 잃는다.⁴⁾ 이것은 교인들이 이사를 가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사망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도 새 가족이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성장이 정체된다.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여 생명력을 얻으려면 전도에 힘써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민 교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은 유동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도의 필요성이 더 크다. 한 예로 이민 교회에는 구성원들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류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는 미정착자들과 유학생들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민 교회의 이러한 불안정한

1) Emil Brunner, *The Word and the World* (London: SCM, 1931), 108.

2) David Bosch, "Evangelism: Theological Currents and Cross-currents Today,"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1 (1987): 98-103.

3) Karl Barth, *Church Dogmatics* (5 vols.; Edinburgh: T&T Clark, 1962), 4:874.

4) Robert L. Bast, *새신자를 끌어라 (Attracting New Members)*, 김명남 역 (서울: 바나바교육원, 2000), 17.

상황을 생각할 때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자명한 논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21세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는 교회성장의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민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 침체로 미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민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변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성장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전도 중심적 목회를 통해 괄목할 만한 교회성장을 이룬 투산영락교회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전도 중심적 목회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논증할 것이며 그 예로 투산영락교회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 교회의 사례는 정착하는 교인보다 유동적인 교인이 많아 교회성장을 고민하는 오늘의 이민 교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앞에서 살펴본 현대 교회 침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투산영락교회의 전도중심 목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렇게 사례 중심의 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교회성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논술보다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투산영락교회의 경우는 아직도 성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 사례를 삼기에는 다소 이론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투산영락교회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전도 중심적 목회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논문은 먼저 전도 중심목회의 이론적 정리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줄 교회들의 사례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투산영락교회에 전도 중심적 목회 방법을 적용한 결과 도출된 경험과 성과들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전도 중심 목회를 교회 성장의 한 가지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간과하기 쉬운 전도 중심적 목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전도 중심적 목회의 성서적 근거를 구약성경과 신약 성경에 따라 제시한다. 3장에서는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준비사항과 전도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들을 조지 헌터(George G. Hunter III)와 머튼 스트롬멘(Merton P. Strommen)의 연구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4장에서는 투산영락교회의 사례를 제시하기에 앞서 전도 중심적 목회로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본고의 주장이 보편적인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총동원전도의 연구 자료로 선정한 교회는 인천의 주안장로 교회이고, 대각성전도집회의 연구 자료로 선정한 교회는 사랑의 교회이다. 이민교회의 경우는 사영리 전도와 전도폭발 훈련을 통하여 전도 중심 목회를 시행했던 토론토 큰빛교회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투산영락교회의 약사(略史)와 함께 동교회의 전도 중심적 목회의 기반 다지기 사역으로서 알파코스과 바나바 사역, 양육시스템을 소개한다. 6장에서는 투산영락교회 전도중심 목회의 핵심사역들인 5배가 전도축제, 투산 정착돕기를 통한 전도, 문화 사역을 통한 전도 등을 그 사역의 성과와 함께 기술할 것이다. 끝으로 7장에서는 전도중심적 목회의 특징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보완할 점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범위는 투산영락교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실시했던 임상적 목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제 2 장

전도 중심적 목회의 필요성

본 장에서는 전도 중심적 목회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전도 중심적 목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전도 중심적 목회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전도 중심적 목회의 정의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는 그의 책 *새들백교회 이야기*에서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에 대하여 논한다. 그가 말하는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은 예배(worship), 사역(ministry), 전도(evangelism), 교제(fellowship), 그리고 제자훈련(discipleship)이다.⁵⁾ 릭 워렌은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열쇠가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적인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⁶⁾ 그러나 릭 워렌 역시 새들백교회를 개척하는 시작의 단계에서는 전도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그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⁷⁾ 이러한 사실은 목회자가 균형 있는 목회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분야에 균등히 쏟을 만큼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소규모의 교회에서는 어느 한 쪽에 힘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중요한 사실은 균형 있는 목회를 실천하는 새들백교회가 개척 초기 단계에서만 전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5)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8), 120-24.

6) Ibid., 146.

7) Ibid.

여전히 전도에 힘을 쏟았다는 것이다.⁸⁾

서정운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구조선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교회는 본래부터 선교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도 없고, 선교 없이 존재해서도 안 되며, 교회가 선교 없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집단이 아닌 한낱 인간의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⁹⁾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가 곧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 중의 중요한 하나는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김명용은 그의 책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에서 교회의 과제와 목적을 마태복음 22장 34-40절을 근거로 하여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 차원의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에 알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수직적 차원의 교회의 과제와 목적이며 동시에 이웃에 대한 책임성, 역사에 대한 책임성과 직결되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수평적 차원의 교회의 과제와 목적이다.¹⁰⁾

김명용은 교회의 과제와 목적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면서도 교회의 역사적 책임의 강조가 교회의 영적 책임의 희석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핵심과제로서의 선교를 피력하고 있다.¹¹⁾

교회가 다섯 가지 목적의 균형 잡기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그 힘이 분산되어 교회의 핵심과제인 전도에 소홀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도 중심적 목회를 ‘교회의 핵심과제인 전도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전도가 우선되고, 나머지 네 가지의 목적 즉 예배와 사역과 교제와 제자훈련은 전도의 협력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목회’라고 정의한다.

8)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58-59.

9) 서정운, *교회와 선교* (개정 7판; 서울: 두란노, 1994), 20.

10)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24-27.

11) Ibid., 28.

제 2 절 전도 중심적 목회의 성서적 근거

1. 구약성서에 암시된 전도

구약에서는 전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많지 않다. 구약의 전도는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¹²⁾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전도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은 4:11). 카이퍼(R. B. Kuiper)는 구약성서를 근거로 하여 삼위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창시자라고 말한다.¹³⁾

가. 모세오경에 암시된 전도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 나타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성서에서 발견되는 전도의 근거라고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분이시고, 소외된 자를 위한 이스라엘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들과 같은 소외된 자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그들에게 사회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시 확인시켰다.¹⁴⁾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족장들의 전도도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인정받았다(창 21:22). 이것은 이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창 26:28). 요셉은 비록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수감되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역경 중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고 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주었다. 이것은 요셉의 삶을 통한 전도라고 할 수 있다. 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러 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였는데(창

12) Eddie Gibbs, 나는 교회 성장을 믿는다 (*I Believe in Church Growth*), 송용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0), 35.

13) R. B. Kuiper, 전도신학 (*God-centered Evangelism*), 박수준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12.

14) David J. Bosch, 선교신학의 패러다임의 변천 (*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CLC, 2000), 45.

41:25), 요셉의 증거가 바로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면 이것은 소극적 의미에서 전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서 요셉의 꿈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구약이 전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창 50:20).

이광순은 “출애굽 사건은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만민에게 자신의 참 하나님 되심을 공표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¹⁵⁾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총회를 앞두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출 19:5-6). 제사장은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백성들을 돕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민족의 중보자로 세우시겠다는 뜻이다.

나. 역사서에 암시된 전도

구약의 역사서에 나타난 전도에 관하여는 나아만의 개종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그의 히브리인 하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도록 권면하였다. 엘리사를 만나 병이 나은 나아만은 결국 우상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증거로 여호와 의 제단을 쌓기 위해 가나안의 흙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왕하 5:12-17).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인 하녀가 이방인 나아만에게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전도의 실례이다.¹⁶⁾

다. 시가서에 암시된 전도

시편 67편은 선교적인 시편이다.¹⁷⁾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

15) 이광순, 이용원 공저,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51.

16) 이반석, “전도동력화를 통한 효과적인 새 신자 정착방안: 제자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7.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축복의 대상을 모든 민족들에게로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절에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하는 부분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시편기자의 마음을 보게 한다. 이 시편에서는 3절과 5절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시편기자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아론의 축복이 결국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원인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들의 구주로 인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목적이 전 세계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영광을 받는 것임을 보여준다.

라. 선지서에 암시된 전도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사야가 전파해야 할 대상에 열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사 60:1-3)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도를 명령하는 것과도 같다. 또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세계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사 61:1-3).¹⁸⁾ 이사야 4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선언하신다. 이 말씀은 부름 받은 모든 백성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¹⁹⁾

구약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이 그 빛으로 나아오기를 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이방을 위한 빛으로 삼기 위해서이다(사 49:6). 에스겔서의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5:5-6)이라는 말씀은 이방에 선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에스겔 33장 7절-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개인 전도의 책임이 있

17) Ralph D. Winter and Steven Hawthorne, eds., *미션 퍼스펙티브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정옥배 역 (개정 7판; 서울: 예수전도단, 2002), 36.

18) 김창준, "전도 생활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훈련: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12.

19) 강문석, 이주영, *개인 전도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2), 38.

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²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방족속인 앓수르 족속에게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방의 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요나는 전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에 전도자의 모범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요나의 전도는 결과적으로 앓수르라는 한 나라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게 만들었다. 요나서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열방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구약성서에는 직접적으로 전도의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신 구원의 계획이 사실 열방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범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지적하고 있다.

2. 신약성서에 나타난 전도

가. 세례요한의 전도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종말이 다가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은 그의 세례 운동을 통하여 임박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백성을 모으려 했던 것 같다.²¹⁾ 요한의 수세 사역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러 나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은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소개하였으며(요 1:29),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다(요 1:33-34).

20) 박웅희, “이민 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전략: 토론토 지역을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13.

21)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19-20.

나. 예수와 전도

(1) 예수와 개별전도와 제자파송

예수는 개별적으로 전도하셨다. 신약성서는 예수께서 12사도 중 7인을 개인 전도로 얻었다고 보여준다. 마태는 세관에서(마 9:9),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았으며(마 4:18-22), 빌립과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만났다(요 1:43-49). 이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요 3:1-21),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요 4:1-42), 간음한 여인(요 8:1-11), 젊은 부자(마 19:16-22), 세리 삭개오(눅 19:1-10) 등을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전도하셨다.²²⁾ 예수는 자신의 인격과 삶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셨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천한 직업이라 하여 교제하기를 꺼려하던 세리를 불러 제자를 삼으셨다.²³⁾

예수께서는 전도가 삶의 목적이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전도자로서 가진 영혼사랑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전도 하였을 뿐 아니라 열 두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셨으며, 전도자가 우선적으로 가야 할 대상과 전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었다. 예수께서 칠십인을 파송할 때에는 둘씩 짝지어 보냄으로(눅 10:1-12) 오늘날 전도대형의 표준이 되었다.

(2) 예수와 전도 방법

버디 머프레이(Buddy Murphrey)는 “예수께서는 그의 시간을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냈다. 영혼구원은 예수의 가장 귀한 일이었으며 우리의 가장 귀중한 일이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⁴⁾ 예수께서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하루 종일 전도하셨으며

22) 장문석, 이주영, *개인전도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2), 41-42.

23) 최준혁, “관계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전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5), 37-38.

24) Buddy Murphrey, *그물을 당겨라 (Drawing the Net)*, 정학봉역 (서울: 동서남북, 1992), 27.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복음을 전했다(막 3:20). 또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요 4:35)는 말씀을 통해 복음전도의 긴박성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때로는 산 위에서(마 5:1), 집에서(눅 5:17), 광야에서(막 8:1,4), 무덤에서(요 11:38), 해변에서(마 13:1), 길가에서(요 7:37), 우물가에서(요 4:13-30) 등 어떠한 장소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하였다.²⁵⁾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다양한 계층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각종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셨다.²⁶⁾ 예수는 개별적으로 전도도 하였지만 대중전도도 하였다. 갈릴리 바다에 모인 회중들에게(눅 5:3),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는 군중에게(마 5:1-8:1), 벳세다 광야에서 큰 무리에게(요 6:2),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러 온 조문객들에게(요 11:19) 대중전도를 하였다. 예수는 나사렛 회당만이 아니라 가버나움 회당(눅 4:32-37) 등 온 갈릴리를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공적인 설교를 통해 전도하셨다(막 1:39; 눅 4:44).

다. 제자들의 전도

(1) 제자들의 전도 내용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명백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사도들의 강조점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케리그마의 핵심은 예수의 주되심(Lordship)의 선포였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선포했다. 그것은 용서, 성령, 양자됨, 화해의 선물이다. 이 선물로 말미암아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멀리 떠나 있던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인간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제자들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도전했다.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요약된다.(행 20:21) 복음전도에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수반된다. 진정한 회

25)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사랑의 교회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14.

26) L. R. Scarborough, *그리스도와 함께 잃은 자를 찾아서 (With Christ after the Lost)*, 김태균 역 (서울: 달산, 1994), 50.

개는 구원의 필수요소이다. 그러나 회개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전도내용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²⁷⁾

(2) 제자들의 전도방법

제자들은 기회가 되면 언제나 대중에게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는 앓은뱅이가 치유된 것을 보기위해 몰려든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회개하였다. 바울은 회당에서 회중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행 24:24)나 아그립바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행 26:27-29)에게는 개인적으로 전도했다. 바울은 아덴(Athens)에서 철학자들에게는 변증으로 전도했고,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간증함으로 전도하였다. 그는 어디에서든지 기회만 된다면 전도의 열정을 쏟아 부었다. 빌립, 수가성 여인 등은 모두 평신도들로 그리스도를 만난 후 즉시 효과적으로 ‘간증’하며 전도하였다.

베드로의 전도는 선포하며 행동하는 전도였다.²⁸⁾ 베드로는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겁한 제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 사건(행 2:1-13) 이후로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적인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베드로의 공개적인 선포를 통한 전도의 방법은 성공적이었고 그 성과는 대단한 것(행 2:14-42)이었다.

바울의 전도는 사실 방법적인 면에서 바라보기보다 그의 열정에 초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마치 자신이 빛을 진 자(롬 1:14)인 것처럼 전도에 열정을 쏟았다. 바울은 사는 목적이 전도(롬 14:8)였는데, 한 마디로 그는 전도에 미친(고후 5:13) 사람이었다. 바울은 전도하지 않으면 자신에 화가 있을 것(고전 9:16)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도에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행 20:24) 열정의 사람이었다. 전도는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전도자의 열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전도 방법은 전도의 기술적인 면보다도 오직 그의 열정으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27)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16-17.

28) 김두현, *성공전도법* (서울: Way-Global, 2006), 44.

안드레와 빌립은 개인적인 전도의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다(요 1:38-46). 그들의 전도방법은 초청 전도(Invitation Evangelism)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로 초청(요 1:40-42)하였고,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초청(요 1:45)하였다. 안드레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형제 베드로에게 고백하며 그를 예수께로 데려갔고, 빌립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의 말을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는 말로 권하여 예수께로 초청하였다. 이들의 전도대상자는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안드레와 빌립은 자신들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전도가 있다. 고넬료가 자신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할 때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행 10:24) 그 자리에 함께 하였다.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고넬료의 전도 방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도자와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과 더불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청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바나바의 전도 방법은 삶을 통한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전도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 말로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바나바는 그의 성품과 신앙이 교회의 인정을 받았고 그의 그런 성품과 신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였다(행 11:24). 성경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마 5:16)고 증거한다.

제 3 장

전도자 및 전도대상자 이해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준비된 전도자가 필요하고 또한 전도대상자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필요하다. 본장에서는 먼저 전도자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과 전도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제 1 절 전도자의 준비

조지 헌터(George G. Hunter III)는 찰스 피니(Charles Finney)와 어거스틴(Augustine)의 말을 빌어 "전도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²⁹⁾ 전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는데 전달자(sender), 메시지(message), 효과적인 전달 도구(media), 수신자(receiver)이다. 여기서 수신자(receiver)에 해당하는 전도대상자는 제2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전달자로서의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준비가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1. 전달자(Sender)

가. 구원의 확신

서정운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메시지와 전달자는 일체가 되고 일치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선교의 메시지는 근원적으로 성육신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9) George G. Hunter III, *잃은 양, 떠난 양, 버린 양을 찾아서 (How to Reach Secular People)*, 김양석 역 (서울: 프리젠프트, 1999), 98.

그래서 성서적 복음전달은 누가 전하느냐 하는 사실이 중요한 문제라고 그는 지적한다.³⁰⁾ 전도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전도대상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영적인 차원을 가진다. 따라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 구원의 확신은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전도를 위한 필수조건이다.³¹⁾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도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만나지도 못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전도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로서 자신이 가진 소망에 대해 묻는 자에게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³²⁾

나. 영적 동정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도자가 되는 사람은 대체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즉 영적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는 말씀은 예수의 영적 동정심을 엿보게 한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도자 바울은 한 도시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삼 년이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엡 20:19). 이사야서에 기록된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58:10-11)라는 말씀은 전도자의 영적 동정심에 중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내적인 간절함은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거두는 사역에 동참하게 한다.³³⁾

30) 서정운, *교회와 선교*, 85.

31) 이명희, *전도학 개론* (서울: 보이스사, 2006), 27.

32) 조은대, *전도학 총론* (개정 2판; 서울: 타문화권목회연구원, 2006), 197.

영적 동정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있다. 빌 하이벨스(Bill Hybels)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생생하게 접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³⁴⁾ 그는 또한 전도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남도 알 가치가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이 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연민으로 충만하신 분이다.³⁵⁾ 바울도 자신으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도록 한 동력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전도 곧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서술한다(고후 5:14-15, 18-19).

2. 메시지(Message)로서의 복음

방선기는 한국교회가 주님이 교회에게 맡긴 복음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 누군가 전도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하였으나 그가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안드레식 전도’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를 만나도록 단순히 그 앞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³⁶⁾ 서정운도 그의 논문 “복음주의 선교 신학”에서 매거브런(Donald McGavran)의 말을 빌어 복음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 전도나 선교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³⁷⁾

전도자는 자신이 전할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는 제 2장 제2절의 제자들의 전도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도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대학생선교회에서 개발한 사영리 전도법이다. 사영리는 1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설명

33) 이명희, *전도학 개론*, 69-76.

34) Bill Hybels, Mark Mittelberg,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한기웅 역 (개정 8판; 서울: 두란노, 2001), 111.

35) Bill Hybels,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Just Walk across the Room)*, 정성목 역 (서울: 두란노, 2006), 30.

36)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하용조 (편), vol. 18 (서울: 두란노, 1997), s.v. “전도를 다시 생각해 본다-방선기” 25-26.

37) 이계준 (편), *현대 선교 신학* (서울: 전광사, 1992), 237.

하고, 2원리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며, 3원리에서는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4원리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가르친다.

3. 효과적인 전달(Media)

가. 성령을 의지함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성령이 없는 전도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기 때문에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한다(행 1:8).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권능은 사단의 세계를 잠재우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힘의 원천이라는 뜻이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달해도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은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영이다(요 16:8-11).³⁸⁾

거듭남도 성령의 사역이다(요 3:6).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딤후 3:16-17), 복음전도자가 그의 사역을 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마 10:20).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35)고 하여 전도할 때에는 성령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친다.³⁹⁾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은 기도이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도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막 1:35, 38). 바울은 기도하는 습관을 잘 개발했다. 기도는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육적인 양식만큼이나 바울의 영적인 삶을 위해 본질적인 것이었다. 그가 구원받은 것도,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난 것도, 교회를 세운 것도,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것도, 여러 도시와 여러 나

38) 조은태, *전도학 총론*, 206-208.

39) Ibid., 208-10.

라와 유럽대륙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것도,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것도, 승리의 죽음을 맞은 것도 모두 기도의 힘이었고 결과였다. 요한 웨슬레(John Wesley)나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와 같은 전도자도 믿음과 기도로 전도한 사람들이었다. 리빙스톤(Livingstone), 케리(Carey), 저드슨(Judson) 같은 선교의 영웅들도 기도로 이방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었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⁴⁰⁾

나. 효과적인 언어표현

전도자는 메시지를 힘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경구절을 외워야 한다. 전도폭발에서 전도훈련을 시킬 때는 성경구절의 암송을 필수적인 일로 여긴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싸움이며 말씀은 무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신의 세계에 죄를 깨우치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을 외우는 것은 전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가지각색이다. 사람에게 따라 강한 거부반응을 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전도자는 불신자의 거친 반응을 대하게 되더라도 예의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변론이나 논쟁은 피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은 지혜롭게 넘기고 핵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전도자는 상대방의 엉뚱한 질문에도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잘 들어주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한다.⁴¹⁾

전도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언어표현을 위해 말씨의 훈련도 잘 받아야 한다. 말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나타내 주는 바로미터이다.⁴²⁾ 짐 피터슨(Jim Petersen)은 전도는 불신자에게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전달하는 ‘복음의 선포’와 전하는 메시지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복음의 확증’의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진술한다.⁴³⁾

서정운은 예수의 신비는 그의 무력성(powerlessness)에 있었으며, 예수의 영성과 메시아 사업 방법은 세속적인 힘으로 압도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비와

40) 이명희, *전도학 개론*, 49-50.

41) 임택진 외, *전도할 수 있습니까* (개정 2판;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2), 90-91.

42) Ibid., 93-94.

43) Jim Petersen, *우리 세대를 위한 창의적 전도 (Living Proof)*, 네비게이트 역 (서울: 네비게이트, 1998), 21.

자기를 비우고 주는 것에 있으며, 타자를 위한 침묵과 고난과 자기희생의 십자가적인 삶과 죽음이라는 세속적 무력성에 있다고 말한다.⁴⁴⁾ 이것은 전도자의 삶과 그의 태도가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며 결국 예수를 닮은 전도자의 모습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전도를 발전시키는 첫 단계는 웃는 얼굴로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하여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언어적 표현은 효과적인 전도의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전도대상자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제 2 절 전도대상자 파악

1. 세속화된 사회

서양이 세속화되면서 과거에 기독교가 국가종교였던 나라들이 이제는 비기독교국으로 전락하였다. 세속성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촉진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에서 촉진되었다.⁴⁵⁾ 이것은 기독교 국가로 탄생한 미국에서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기독교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⁴⁶⁾ 따라서 전도대상자인 오늘의 사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회가 어떻게 세속화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 세속화를 촉진한 6가지 사건

세속화는 르네상스와 함께 시작되었다. 르네상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과 신학적 문제들에서 이 세상과 인간, 인류의 발전으로 돌려놓았다. 그리스 철학의 재발견은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낳았고 이로 인해 다원주의와 사고론적 회의주의가 태

44) 서정운, *교회와 선교*, 87.

45) George G. Hunter III,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Church for the Unchurched)*,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27.

46) Hunter, *잃은 양, 떠난 양, 버린 양을 찾아서*, 28-33.

동했다. 인문주의는 기독교의 진리와 윤리에 맞서는 주요 사상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국가종교로서의 기독교 세계의 붕괴를 가속화했다. 개혁자들의 철저한 정교분리의 주장으로 교회는 내부 개혁과 신학적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민족주의와 새로운 독립 국가들의 발흥으로 인해 세속화가 계속되었다. 민족주의 정신은 기독교 세계로서 하나였던 유럽을 분열시켰고 1, 2차 세계대전과 빈번한 전쟁을 유발하여 허무주의를 확산시켰다.

과학의 발달로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다윈의 진화론은 성경적 창조론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로 전락시켰다.

계몽주의는 서구 사회의 세속화를 촉진시켰는데, 사람들에게 종교 없이도 오직 이성으로 근거해 도덕 윤리를 확립하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서구사회의 도시화는 세속화 과정의 중요한 촉매제였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서구사회 뿐 아니라 전 지구가 도시화 되었거나 도시화되어 간다. 도시생활의 특징인 분주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게 만들고 있다.⁴⁷⁾

나. 세속화되어 가는 양상들

마틴 마티(Martin Marty)는 교회와 서구 사회의 이반 현상이 적어도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첫째,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공격을 퍼붓는 볼테르,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로 인한 ‘철저한 세속성’이다. 둘째, 이 세상과 일상생활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과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비난하거나 공격하지도 않는 사람들로 인한 ‘온건한 세속성’이다. 셋째, 기독교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본질은 참된 기독교와 거리가 먼 사람들로 인한 ‘통제된 세속성’이다. 각기 세속화 과정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과학 중시, 민족주의와 인도주의 표방, 도시화와 서구화 현상이다. ‘세속성’이 ‘세속주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세속화된 토양은 결국 ‘세속주의’를 양산하게 된다.⁴⁸⁾

47) Hunter, *잃은 양, 떠난 양, 버린 양을 찾아서*, 31-35.

48) Martin Marty, *The Modern Schism: Three Paths to the Secular* (London: SCM, 1969), Hunter, *잃은 양, 떠난 양, 버린 양을 찾아서*, 37-42에서 재인용.

다. 세속화에 대한 교회의 극단적 대처와 그 영향

지난 역사의 경험에 의하면 세속화에 대한 교회의 극단적인 반응들은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과학과 정면충돌을 벌인 것으로 레오나르도의 시신 해부에 대한 금지, 코페르니쿠스의 책들에 대한 금서 규정, 갈릴레오의 천문학적 발견에 대한 부인 강요, 그리고 뉴턴과 다윈 등의 인물을 이단으로 간주한 것 등이다. 카톨릭 교회는 전반적으로 계몽주의 운동에 반대하였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시민 봉기 때에 군주들의 편을 들었다. 개신교 교회는 도시에 편중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세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도시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David Edwards)는 세속화의 원인을 성직자들이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과학과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며, 도시의 산업근로자를 교회로 이끌지 못한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의 세속화와 교회의 극단적 반응의 결과, 동유럽이 공산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세속화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남으로 인해 이제 서구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교회는 디오게네스 알렌(Diogenes Allen)이 주장한 서구 사회에 대한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⁴⁹⁾

2. 세속화된 사람

지난 수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에서 교회가 누려 왔던 중심적 위치와 영향력은 서구 사회의 세속화로 인해 상실되었다. 교회는 유럽과 미국을 재복음화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스트롬먼(Merton P. Strommen)은 론스발(Ronsvalles)의 주장을 빌어 미국이 과거의 낡은 방식들을 벗어 버리고 역동적이고 선교중심적인 방식으로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미국 총 인구에 대한 교인수의 비율이 0%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한다.⁵⁰⁾

세속적인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 세속화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종교심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점성술에서부터 선(Zen)에 이르기

49) Hunter, *잃은 양, 떠난 양, 버린 양을 찾아서*, 33-37.

50) John Ronsvalle and Sylvia Ronsvalle, “The End of Benevolence? Alarming Trends in Church Giving,” *Christian Century* 113 (1996): 1010-14. Merton P. Strommen, *교회혁신을 위한 7단계 전략 (The Innovative Church)*, 안성근 역 (포항: 예본, 2000), 109에서 재인용.

까지 수많은 신흥 종교들이 계속 발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에 다니지 않을 지라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각종 종교 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비윤리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되었다. 세속적인 사람들 중에도 각종 인권 운동에 참여하며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철저히 반박하는 영악한 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판적인 성향이 약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

도널드 소퍼는 열 가지로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했다.⁵¹⁾ 첫째, 일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지하다. 둘째, 사후 세계보다 현실 세계를 더 추구한다. 셋째, 회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넷째,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섯째,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여섯째, 하나님조차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많다. 일곱째, 자기 비하적이다. 여덟째, 역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 아홉째, 인간 본성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열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찾지 못한다.

오늘의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왜곡 전달됨으로 인해 현대인의 삶과는 무관한 종교로 간주되기도 한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를 동경하며 내세를 대비하도록 했었지만 현대인들은 현세에 사는 동안 인생을 보람 있게 살며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회의주의의 영향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사를 부정하고 의심부터 하는 버릇을 만들었다. 그래서 심지어 강단의 설교를 듣고서도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의문을 표시한다. 종교보다 과학과 일반 상식을 신뢰하고 교회의 지성에 대해 의심하며 교회의 가르침이 개인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긴다. 개인 여가추구로 인해 동료의식이 상실되었기에 고독하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인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만적이며 자기 비하적이거나 자기 교만에 빠져 산다.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를 ‘통제 불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한다. 심각한 중독 증세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없어 일, 돈, 섹스, 도박, 그 외의 것들에 제각기 중독되어 통제 불능의 삶을 산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찾지 못하는 절망감 때문에 그분을 부인한다.⁵²⁾

51) Strommen, *교회혁신을 위한 7단계 전략*, 51-54.

52) Ibid., 54-67.

3. 불신자들의 유형 이해

라이너(Thom S. Rainer)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복음 전도에 대한 불신자들의 다양한 반응에서 착안하여 라이너 척도라는 것을 개발하였다. 그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U5 단계는 복음을 극도로 거부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고, U4 단계는 복음을 거부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은 사람들이며, U3 단계는 뚜렷한 수용성을 보이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화에 열려 있는 경우도 있는 사람이다. U2 단계는 복음과 교회에 열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며 U1 단계는 복음에 매우 열려 있는 사람이다.⁵³⁾

라이너는 불신자들의 유형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U5 단계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U5는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의구심과 의문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U4 단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나 그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U3 단계의 사람들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 무심하고 모호한 태도를 가진다. 이들에게는 복음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U2 단계의 사람들은 복음에 열려 있으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U1 단계의 사람들은 복음에 가장 열려 있는 그룹으로 이들은 복음을 전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라이너는 미국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를 문화가 세속화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팽배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침묵 때문이라고 말한다.⁵⁴⁾

53) Thom S. Rainer,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 (The Unchurched Next Door)*, 이혜림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7), 70-72.

54) Rainer,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 276-89.

제 4 장

전도 중심적 목회의 타 교회 사례

전도 중심적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장에서는 전도 중심적 목회를 실시하여 성장한 교회들의 성장의 약사(略史)와 교회에서 실시해 온 전도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 순서로는 한국 교회들 중에서 주안장로교회와 사랑의 교회 그리고 이민 교회로서 토론토 큰빛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한국 교회의 사례

1. 주안 장로교회

가. 주안장로교회 성장의 약사(略史)

1955년 인천지역에서 창립한 주안장로교회는 1978년 나겸일 목사가 부임할 당시까지 250여명의 교인이 출석했다. 나겸일 목사는 1988년부터 총동원전도운동을 새벽 기도운동과 겸해 시작하면서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 1989년에는 13,000여명이 모이는 대교회로 성장하였다. 계속된 전도 중심적 목회로 교회는 계속 성장을 거듭하여 2002년에는 출석교인 35,5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⁵⁵⁾ 2007년의 교인수 통계에 의하면 재적성도 80,000명에 출석교인 55,000명으로 소개되고 있다.⁵⁶⁾

55) 나겸일, *전도 집중 교회로 만들라* (서울: 두란노, 2003), 25-31.

56) 나겸일, "교회역사," n.p. (2012년 2월 인용) Online: http://w2.juan.or.kr/2_2a.asp.

나. 주안장로교회의 전도 방법

나겸일은 주안장로교회의 전도의 특징을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과 교회 구성원의 모든 사람이 전도에 동참하도록 힘쓴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안장로교회는 전도 집중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전도의 구체적 방법들로 교구별 전도, 파이프 생명운동전도, 새 생명 전도단을 통한 전도, 개발지구 입주지역 전도, 구역전도(소그룹전도), 총동원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1) 교구별 전도

주안장로교회는 각 지역 위주로 편성된 교구를 중심으로 교구별 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각 교구에서는 전도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특별 중보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동원전도주일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는 교구전체 총력 전도주간을 갖고 이때에는 온 교구가 전체 활동을 멈추고 오직 전도에만 전념한다.

나겸일은 주안장로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구별 전도의 장점을 온 교우가 전도의 방관자가 아니라 전도의 동참자가 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⁵⁷⁾ 그러나 교구별 전도에는 교인들이 자칫 겉치레 행사나 계속되는 행사 위주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도 지적한다. 교구별 전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구장과 교구의 리더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2) 파이프 생명운동 전도

주안장로교회의 파이프 생명운동 전도방법의 핵심은 전도자가 전도대상자를 다섯 번 방문하고 매일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다.⁵⁸⁾ 이 파이프 생명운동 전도방법은 전도자로 하여금 전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전도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프 생명운동에서는 전도자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다만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만이 필요하다. 주안장로교회는 전도가 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구역장을 통해 구역장 모임에서 매주 방문하는 방법과 횟수를 알려 주도록 하고 있으며 구역장들은 구역

57) 나겸일, *전도 집중 교회로 만들라*, 33-37.

58) Ibid., 38-41.

원들이 전도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주안장로교회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매일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며 전도자가 전도대상자의 집을 방문하기 전과 방문 후에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고 있다. 방문하지 않는 날에도 정해진 시간에 중보기도를 하고 교회의 공적 예배와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항상 전도대상자를 위한 합심기도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주안장로교회는 전도자가 전도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수첩을 제작하여 전도자들에게 제공한다.⁵⁹⁾ 전도수첩은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전도수첩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구역장 모임이나 주일 예배 후 광고시간을 이용해 수첩 활용방법을 반복해 교육한다. 뿐만 아니라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의 전도수첩 사용에 대해 체크하고, 교구장들은 구역장들의 전도수첩을 체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겸일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실천에 유의할 사항이 있음도 지적한다. 전도수첩의 내용은 파이프 생명전도의 실천방안과 방문 및 중보기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도 시 필요한 정보들, 각 예배 시간과 교회학교 예배 시간과 장소, 전도 시 유용한 성구, 복음 제시법, 영접 기도 등 전도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파이브 생명전도법은 총동원과 함께 진행된다.⁶⁰⁾ 주안장로교회는 이 전도 방법을 통해 전도의 부담감을 가진 교인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전도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파이프 생명운동 전도법은 총동원전도주일을 앞두고 **D-day** 4주 전부터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만 실시한다.

(3) 새 생명 전도단을 통한 전도

새 생명 전도단은 각 교구 조직을 중심으로 각 교구장의 추천을 통해 전도에 열정을 가진 전도자들을 따로 선출하여 구성한 전도요원들이다.⁶¹⁾ 주안장로교회는 새 생명 전도단을 전도요원으로 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계전도에 앞장서면서 각 교구 전도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새 생명 전도단은 교구 식구들

59) 나겸일, *전도 집중 교회로 만들라*, 42-43.

60) Ibid., 44-45.

61) Ibid., 46-47.

과 함께 전도의 열정을 나누고 그들이 전도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역할로 한다. 새 생명 전도대원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전도 지도를 제작하여 평생 전도구역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4) 개발지구 입주지역 전도법

주안장로교회의 입주지역 전도법은 개발지역이나 신도시 입주 예정지 등과 같은 지역에는 기존의 교구 조직이나 기존의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입주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⁶²⁾ 주안장로교회는 개발지구로 목회자와 함께 전도팀을 구성하여 파견하였다. 개발지구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전도대를 조직하고 훈련하여 입주와 함께 전도를 개시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중심적 목회를 실천하는지 보여준다. 개발지구를 위해 구성된 전도대는 전도를 위해 아파트 사무실에 가서 주안장로교회를 소개하고 입주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협조를 구해 천막 칠 장소를 지정받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도를 위한 장소가 마련되면 그곳에서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무료강습회 신청서를 배부하는 등 새 입주자들의 이삿짐을 도와주고, 주변지역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새 입주자들의 아파트 입주가 끝날 때까지 전도를 지속한다.

개발지구에서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나면 주안장로교회는 종교 설문조사를 통해 축호 방문전도를 실시하고, 아파트 게시판을 활용하여 교회 홍보물을 설치하며, 셔틀 버스를 운행하여 교회출석을 돕기도 한다. 주안장로교회는 종이꽃 접기 무료강습을 통해 새 입주자들을 전도하는데, 나겸일은 이러한 전도방법이 아주 효과적인 성과를 거둔다고 소개한다. 이 종이꽃 접기 무료강습은 일대일로 진행되며 이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표는 전도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나겸일은 개발지구 입주지역 전도법에서 총동원 전도를 연계하고 있는데 총동원전도는 전도자로 하여금 새 입주자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과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한다.

62) 나겸일, 전도 집중 교회로 만들라, 48-52.

(5) 구역전도(소그룹 전도)

나겸일은 구역전도를 교회로의 초청의 중간단계로 설명하고 있다.⁶³⁾ 구역모임은 전도대상자를 총동원일 한 주 전에 초청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구역원들과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나겸일은 구역전도를 소개하기를 교인이 혼자서 전도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 주고 전도대상자에게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6) 총동원 전도

나겸일은 주안장로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총동원전도를 "교회의 모든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정한 날에 온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 집중해, 영혼구원이라는 지상최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⁶⁴⁾ 주안장로교회는 총동원전도 주일을 통해 온 교인이 불신자를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안장로교회는 전도할 때 선물을 사용한다. 선물을 통해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열며 전도대상자들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나겸일은 총동원전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의 예산 책정이 전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성공적인 전도의 성과를 위하여 담임목회자를 비롯하여 리더들의 열의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총동원전도는 주안장로교회의 전도의 핵심이다.

다. 주안장로교회의 전도 평가

주안장로교회는 전도에 모든 것을 건 교회이다. 담임목사의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해서 모든 목회자와 온 성도가 합심하여 전도함으로써 전도 중심목회를 통한 교회 성장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나겸일 목사 부임 당시 출석 성도 250명이던 교회가 33년만에 55,000명이라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고 전도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다. 주안 장로교회의 전도중심목회의 핵심을 살펴보면 첫째, 주안장로교회의 전도는 먼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온 교인을 전도에 참여케 하고 있다. 셋째, 전도에 유익한 다양한 종류의

63) 나겸일, *전도 집중 교회로 만들라*, 46-47.

64) Ibid., 58-62.

전도 방법을 동원하여 전도하고 있다. 넷째, 담임목사 자신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전도를 한다는 점이다. 나겸일 목사 부임이후 33년 동안 전도를 쉬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위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시대와 여건과 형편이 어찌되었건 담임목사이하 모든 교인이 주님의 대 사명에 순종해서 전도중심적 목회로 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이다. 주안장로교회는 이 중요한 교훈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사랑의 교회

가. 사랑의 교회의 성장의 약사(略史)

사랑의 교회는 옥한흠 목사에 의해 1978년에 개척된 교회이다. 처음엔 강남은평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1981년 ‘사랑의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랑의 교회는 개척 후 4년이 되던 1982년에 8주간에 걸쳐 실시했던 ‘사랑의 생활화 세미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성도들의 영적 대각성’과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대각성 전도집회’를 시행하였다.⁶⁵⁾ 이 집회의 당시의 이름은 “제1회 사랑의 생활화 대전도집회”였다.⁶⁶⁾ 사랑의 교회는 계속되는 대각성 전도집회를 통해 매년 4백에서 2천 명의 결신자를 얻었으며 그 중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교회에 정착하는 수만도 매년 평균 5백 명을 넘었다. 1992년의 새 참석자 수 1,455명에 결신자 수 615명이 1997년에는 새참석자 수 4,323명, 결신자 수 1,997명이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실시한 ‘대각성 전도집회’와 ‘전도폭발’ 등의 전도 중심목회를 통해 놀라운 성장과 더불어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하였다.

65) 사랑의 교회 (편), *새천년을 새 생명과 함께*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9), 20.

66) 오정현, “역사”, n.p. (2012년 2월 인용) Online: http://info.sarang.org/frameindex.asp?url_flag=/info/010101_history_5.asp

나. 사랑의 교회의 전도 방법

(1) 대각성 전도집회

대각성 전도집회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⁶⁷⁾ 준비 과정과 진행 그리고 사후관리의 단계이다. 대각성전도집회의 준비는 주제 잡기와 강사 선정으로부터 시작된다.⁶⁸⁾ 사랑의 교회가 주제 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적절한 주제 선택을 통해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선정된 주제의 예는 ‘만일 당신에게 예수가 없다면!’, ‘죽어가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말자!’, ‘주 예수를 믿으라’, ‘믿어야 산다!’ 등이다. 사랑의 교회는 처음 몇 해 동안은 담임목회자가 메시지를 전하다가 후에는 강사도 초빙하였다. 강사 선정에서의 주안점은 복음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며 영적 대각성을 위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자를 찾는 것이다. 복음 메시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사들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였다. 사랑의 교회의 대각성 전도집회는 8개의 분과 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기획분과, 홍보분과, 동원분과, 등록분과, 총무분과, 예배분과, 기도분과 그리고 자료분과이다. 사랑의 교회는 대각성 전도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5-6개월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졌다. 준비기간을 충분히 잡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태신자를 걱정하고 전도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의 교회는 대각성 전도집회를 개최하기 전 2주 동안에 걸쳐 ‘25시간 체인 기도’를 실시함으로써 집회가 기도로 준비될 수 있게 한다. 대각성 전도집회는 태신자 등록 업무를 전담하고 또 태신자에게 접촉하기 위한 각종 전도자료들을 비치하고 보급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본부를 운영하였다. 사랑의 교회는 전도용 자료를 제작하여 전도자들에게 보급하였다. 사랑의 간증 시리즈를 담은 전도지를 제작하였는데 이 전도지는 성도의 신앙 간증이나 인기 있고 인지도가 높은 신앙인의 간증을 실어 태신자로 하여금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사랑의 엽서와 설교소책자 그리고 전도용 테이프를 제작 보급되었다.

사랑의 교회는 대각성 전도집회를 진행할 때 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집회가 시작되면 교회는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태신자에게 꽃을 달아주거나 꽃다발을 선사하는 등 밝고 친절한 안내를 위해 힘쓴다. 집회에

67) 사랑의 교회 (편), *새천년을 새 생명과 함께*, 29.

68) Ibid., 33.

서 사용하는 찬양은 태신자들이 마음을 열수 있도록 선곡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간증의 순서에서는 태신자들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평신도들의 신앙 경험담을 들을 수 있게 한다. 사랑의 교회는 간증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회가 시작되기 두 달 전부터 간증자를 발굴하고 훈련한다.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에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제를 상기시키는 영상물을 방영하고, 복음 메시지는 불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집회의 순서에는 결신 초청의 시간이 있는데 복음을 들은 태신자들로 하여금 결신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집회는 찬양으로 마무리 되고 집회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사랑의 교회는 집회가 끝난 이후 대각성 전도집회의 사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신자를 위한 특별 환영모임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교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필요한 경우, 집회에서 결신한 태신자들을 전도폭발팀과 연결해 주어 다시 한 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결신자들의 경우에도 집회 참석시에 입수한 그들의 정보를 토대로 지속적인 전도를 시도한다. 특히 이 자료는 전도폭발 훈련에서 전도대상자로 활용된다.

(2) 전도폭발 훈련

사랑의 교회에서는 ‘대각성 전도집회’와 함께 ‘전도폭발훈련’이 복음전도사역의 핵심을 이룬다. 전도폭발 훈련은 제자훈련을 마친 성도들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도폭발 훈련은 1960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포트 로더데일(Fort Lauderdale) 소재 코럴 릿지 장로교회(Coral Ridge Presbyterian Church)의 담임목회자인 제임스 케네디(James Kenedy)가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제임스는 20여 년 동안 전도폭발 훈련을 실시하여 코럴 릿지 교회를 6,500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로 성장시켰다. 전도폭발은 개인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전도폭발 훈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의 원리이다.

전도폭발의 주요 내용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은 다시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부분은 전도자와 전도대상자 사이에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복음제시의 부분은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순서로 구

성되어 있어 전도대상자로 하여금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복음의 다섯 부분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적절한 예화를 사용하였다. 결신의 부분은 확인질문, 결신질문, 결신설명, 결신기도와 구원의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하도록 도와준다. 즉석 양육지도 부분에서는 성경, 기도, 예배, 전도로 구성된 내용으로 성장을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⁶⁹⁾

제 2 절 이민교회의 사례: 토론토 큰빛교회

1. 토론토 큰빛교회의 성장의 역사(略史)

토론토 큰빛교회는 한인 교회로서 토론토에서 개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이다. 박재훈 목사가 1984년 7월에 불과 다섯 세대와 함께 세인트 앤드류 교회(St. Andrew Church)에서 창립 예배를 한 후 1990년까지 목회하고 은퇴하였고, 2대 담임목회자로 임현수목사가 취임하였다. 큰빛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이다.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가 목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이다. 임현수 목사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출신으로 교회 안에서는 사영리와 전도폭발을 통한 전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밖으로는 북한 및 중국 선교와 관련해 많은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큰빛교회는 셀 조직으로 된 가정교회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와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다. 큰빛교회는 새 생명 훈련과 전도폭발훈련을 중심으로 한 전도중심 목회를 통해 이민교회에서 보기 힘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⁷⁰⁾

2. 토론토 큰빛교회의 전도방법

전도폭발훈련에 대한 것은 사랑의 교회의 사례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새 생명 훈련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새 생명훈련은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영리 전도훈련이다. 새 생명훈련은 사영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반복 실습하는 것이다. 새 생명훈련의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을 다시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데 있다. 훈련의 방

69)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61-69.

70) 박용희, “이민 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 전략,” 49-50.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범을 통한 실습이고, 사역의 과정은 전도와 육성과 훈련 그리고 파송이며, 훈련의 진행은 강의와 토의와 전도실천 그리고 점검으로 이루어진다.

큰빛교회의 사영리 전도훈련은 1989년부터 실시하여 전도폭발훈련과 함께 처음에는 일 년에 한 차례씩 실시되다가 나중에는 봄과 가을 두 차례로 그 횟수가 늘었다. 15기가 진행되는 동안 사영리 전도훈련의 수료자는 300여명이었다. 큰빛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리고 가정 교회의 목자는 반드시 새 생명훈련과 전도폭발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만약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사역할 수 없다. 이는 교회의 중직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킴으로써 전도 중심적 목회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새 생명훈련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상황에서나 선교지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사영리 전도방법은 개인적으로 접근하는데 용이하며 전도의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⁷¹⁾

전도폭발훈련에 대한 큰빛교회의 특징은 이 훈련이 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전도폭발 훈련은 과제 점검, 강의 수강, 전도 시범 및 공개 보고회의 과정을 거친 후, 훈련자 1명, 준훈련자 1명 그리고 신입 훈련생 2명이 조를 이루어 현장실습을 한다. 훈련기간은 1999년도부터는 매년 2회 봄과 가을에 화요모임으로 13주 동안 실시되었고, 훈련의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 성인 그리고 영어권에 이르기까지의 전 영역이었다. 큰빛교회가 1991년도에 시작하여 2004년도 하반기까지 배출한 전도폭발훈련 수료자는 643명이다. 큰빛교회는 전도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수천 명의 불신자를 전도하였으며 이러한 전도를 통하여 지금과 같은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⁷²⁾

71) 박웅희, “이민 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 전략,” 51.

72) Ibid., 52.

제 5 장

투산영락교회의 전도 중심 목회 기반 다지기

투산영락교회는 교회의 핵심사명인 전도를 더욱 힘 있게 실천하기 위해 전도와 더불어 전도 중심적 목회의 기반을 다지는 사역들을 함께 진행하여 왔다. 따라서 필자는 전도 중심적 목회의 핵심 사역을 논하기 전에 제 5 장에서 첫째, 전도자를 준비시키는 역할과 함께 불신자나 초신자에게 복음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알파사역’에 대하여 서술하고, 둘째, 아직 알파코스에 참여하지 못한 새 가족들의 정착을 돕는 ‘바나바사역’에 대하여 논하며, 마지막으로 정착한 교인을 사명자 곧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투산영락교회가 실시해온 ‘양육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투산영락교회의 성장의 약사(略史)

투산영락교회는 2000년 1월에 이항성, 이중목 장로를 중심으로 약 15명의 성도들이 이항성장로 가정에서 영락교회 창립준비 예배로 모이면서 시작되었다. 그 해 3월에 1대 지용웅 목사가 부임하여 5월에 창립예배를 드렸고 9월에는 미주한인장로회 서중노회 가입하였다. 2004년 2월에 필자가 2대 목사로 부임할 때에는 교회가 어려워져 2 가정만 남은 상태였다. 필자는 부임한 후 3월에 “꿈꾸는 교회 축제가 있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예배의 축제, 전도의 축제, 배움의 축제, 교제의 축제 그리고 섬김의 축제라는 다섯 가지 목회비전을 세웠다. 4월에 전도중심목회의 기반을 다지는 바나바사역훈련을 실시하였고 9월에 전도중심목회의 핵심사역으로 5배가 전도 축제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실시한 전도축제는 1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58명이 교회에 받을 되었다.

미국교회 건물을 임대하여 예배처소를 사용하는 단점이 있었음에도 2006년에는

90여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해 후반기에 새로 등록한 교인으로 인해 내부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갈등은 일시에 40여명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아픔을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2007년에는 예배처소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미국교회의 요청으로 교회가 갑작스럽게 이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 때문에 성도들은 부활주일 예배를 야외 공원에서 드려야 했고, 그나마도 한 장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다음 주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회는 적당한 주택을 구입하여 수리 후 예배처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웻모어 길(1454 W Wetmore Rd Tucson AZ)에 위치한 대략 1.2 Acre의 대지와 3,000 Square feet 건물면적을 가진 가정집을 구입하였다. 3개월여 간의 수리 후에 2007년 10월에는 그곳을 새로운 예배처소로 사용하였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변상황이 좋지 않아도 교회는 매년 하반기가 되면 5배가 전도 축제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는 안정되어 갔고 계속 성장하였다.

교회가 성장함을 따라 2010년 3월에는 새 성전구입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었고, 쏘니데일 길(6570 N Thornydale Rd Marana)에 위치한 2 Acre의 대지와 27,000 Square feet 건물면적을 가진 전문인 체육센터 건물을 구입하기로 하여 5월에 구매계약을 하였다. 약 4개월의 보수 작업 후 2011년 5월에는 새 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2011년에는 투산영락교회의 주일 출석교인수가 200여 명이 되었다.

제 2 절 알파사역

1. 전도 중심적 목회에서의 알파사역의 위치

투산영락교회에서 시행해 온 알파사역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다. ‘전도자의 준비’와 ‘전도의 방법’으로서의 사역이 그것이다. 알파사역은 전도자의 준비를 위한 목적이 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에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목회자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에게 전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래서 투산영락교회는 먼저 기존 교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심어주기 위해 알파사역에 참여토록 하였다. 물론 알파사역의 두 번째 목적인 실제적인 전도를 위해

새 가족들도 초대하여 동참시켰다. 잘 준비된 알파사역은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교인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투산영락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알파사역을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된 사람도 있다. 알파사역은 교인들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전도자가 되도록 준비시켰다. 투산영락교회는 2005년에 첫 번째 알파코스를 시작하였고, 매년 일회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약 60여명의 수료자들이 배출되었다. 알파사역은 전도중심 목회의 기반이 되어 교회성장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 알파코스는 무엇인가?

알파코스는 1976년 영국의 성공회 교회인 HTB(Holy Trinity Brompton) 교회에서 찰스 만함(Charles Marnham)신부에 의해 시작되었다.⁷³⁾ 당시의 영국교회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놀이 문화의 확산으로 17세에서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교회 존속의 위기 상황이었다. 이러한 교회 존속의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기를 원했던 찰스 만함 신부는 불신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비공식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토크 시간을 가졌는데 이 토크는 청취자들이 자신의 의문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대화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이것이 알파코스의 시작이었다. 처음 알파코스는 4주 동안 예수, 성경, 기도, 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5년 동안 지속되다가 1981년 존 어바인(John Irvine) 신부 때에 10주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10주 과정에서는 주말 수양회(weekend program)로 성령의 날을 만들었다.

알파코스는 1985년 니키 리(Nicky Lee)가 맡아 더욱 체계화시켰고 그 후 니키 검블(Nicky Gumble)이 HTB교회에 부임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알파(ALPHA)는 ‘Anyone can come(누구든지 올 수 있다)’, ‘Learning and laughter(웃으면서 배운다)’, ‘Pasta(함께 음식을 먹는다)’, ‘Helping one another(서로 섬기며 돕는다)’, ‘Ask anything(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다)’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다.

현재 투산영락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알파코스는 10주간 15개의 토크로 구성되며

73) HTB, ed., *알파코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라 (Maximizing the Potential of Your Alpha Course)*,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1994), 22-25에서 요약 정리한 것임.

6주차에는 주말 수양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상황이 대체로 며칠간을 내어 수양회를 갖는 데에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교회에서 주말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해 왔다. 필자는 알파코스의 10주간의 과정 중에 주말 수양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말 수양회는 알파코스에 참가한 사람들 각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 가르침으로 참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참가자들이 주말수양회를 통해 성령충만을 경험하게 함으로 마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충만을 경험하고 전도자가 되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며 실행해 왔다. 알파코스의 제일 마지막에 갖는 알파축하만찬은 알파코스 수료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다음 알파코스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 알파코스의 사전 준비

가. 광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초대를 받아 알파코스에 참석한다. 그러나 광고는 알파코스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광범위하게 보급되어진 광고는 사람들에게 신뢰성과 기대감을 준다. 또 광고는 알파코스를 마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다. 광고는 초청을 위한 대화 시작의 접촉점을 제공하고 초청 대상자로 하여금 알파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게 하여 초청자는 더욱 쉽게 그를 초청할 수 있게 만든다. 광고는 초청자에게 토론거리를 제공하고 초청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⁷⁴⁾

투산영락교회는 알파사역을 시작하기 약 6주 전부터 광고를 실시하였는데, 교회 게시판과 한인마켓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였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또 교회 주보와 교회안내 책자 그리고 투산영락교회의 잡지인 “사막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광고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자동차 스티커나 전단지를 제작하여 광고할 수도 있다.

74) HTB, *알파코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라*, 61-62.

나. 모집

알파코스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알파는 용이하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알파코스를 수료한 사람들이 그의 친구나 가족 또는 직장 동료를 데려오게 하는 것이다. 알파코스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면 이것은 좋은 관행으로 정착된다. 알파의 마지막 코스인 축하만찬의 시간은 다음 알파 참석자들을 모으는 데 특히 중요하다. 또 알파코스를 준비하기 위해 알파코스가 시작되기 전 두 주간 동안 특별예배로 드리는 것도 사람을 모으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먼저, 알파코스 두 주 전에는 알파주일로 지킨다. 약 10분 동안 알파코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알파주일의 목적은 다음 주에 있을 게스트 예배와 다음번 알파코스에 친구를 초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주보와 함께 알파코스 초청장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알파코스 한 주 전에는 게스트 예배로 드린다. 이 예배는 특별히 불신자를 위해 준비한다. 알파축하만찬 때나 알파예배 그리고 게스트 예배에는 모두 알파코스를 통해 삶이 변화된 수료자의 간증이 꼭 필요하다. 교회가 이전에 알파코스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면 다른 교회 사람을 초청하여 간증할 수 있다. 간증자를 세울 때에는 공적인 장소에서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간증은 자발적일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 외에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전도집회 때 알파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고,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식의 참여자로 준비하는 과정에 알파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알파코스에 참석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⁷⁵⁾

4. 알파코스의 실제

가. 장식

알파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초청대상자인 VIP들을 위해 강의 장소 및 교제의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 준비된 장소가 VIP들에게 환영의

75) HTB, *알파코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라*, 15-21.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귀하게 대우받는다고 여길 때 마음 문을 열기 때문이다. 투산영락교회는 환영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꽃꽂이를 하고, 테이블보를 씌워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참가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의자 배치도 잘 해야 한다. 강의실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토크를 경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알파코스의 그 날 주제를 알리는 레터링을 강의실에 부착한다. 강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추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음향시설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둘 수 있도록 배려하고, 화장실과 그룹 모임의 장소를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식사 준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알파코스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서로를 알게 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 사람들은 정성이 담긴 음식 때문에 감동을 받고 알파에 계속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투산영락교회는 알파사역의 초기단계에서 주로 교역자와 사역 담당자의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였다. 알파수료생이 배출되면서부터는 알파수료생들이 도우미로 사역하고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함으로 협력하였다. 알파 식사로 적당한 메뉴에는 파스타나, 비빔밥, 회덮밥 등 많은 반찬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소하면서도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였다.

다. 안내 요원

참가자들이 좋은 첫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입구에서부터 환영의 분위기가 돋보여야 한다. 안내요원들은 밝은 미소로 게스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며 참가자들이 누구인지 명단과 참가자의 수가 적혀있는 목록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것은 예상하지 않았던 참가자가 도착하여 그들을 위해 새롭게 테이블 세팅과 선물 등을 준비해야 할 때 도움이 된다.

라. 선물과 명찰 준비

저렴한 비용이라도 선물을 사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선물은 유용하게 쓸 수 있

는 것으로 선택하고 정성껏 포장한다. 선물은 환영의 메시지나 은혜로운 말씀을 적은 카드와 함께 테이블에 세팅하여 둔다.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선물은 게스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고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다. 참가자들의 이름표도 준비하여야 한다. 이름은 철자를 바르게 쓰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름표를 테이블에 세팅할 때는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좋고, 예상하지 않았던 참가자들이 왔을 때를 위해 즉석에서 이름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최소한 3주 정도까지는 참가자들이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서로 이름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 찬양 준비/강의 준비

찬양 리더는 악기 연주자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과 함께 악보와 참가자들을 위한 가사 파워포인트 그리고 모든 음향 장비를 잘 점검해야 한다. 선곡을 할 때에는 불신자나 초신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사는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멜로디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면서도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매력적인 것이면 좋다. 처음부터 너무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이나 기독교적인 용어가 많은 곡을 선택하면 안 된다. 또 찬양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부 곡들은 다음 주에도 반복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곡이 익숙해지면서 따라 부르기 쉽게 된다. 알파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알파 토크가 잘 진행되어야 하고 참가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강사는 자신감 있게 알파 토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비디오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강사를 활용한다. 그러나 투산영락교회는 처음부터 강사가 직접 토크를 진행하였다. 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도입부에서 그 날의 주제와 관련된 3~5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준비된 영상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때 참가자들은 마음을 열고 토크에 집중하게 되었다.

바. 강의 내용

알파코스는 15개의 토크로 되어 있다.⁷⁶⁾ 투산영락교회는 알파코스 본부에서 사용

76) Nicky Gumble, *알파 시작하기 (Telling Others)*, 알파코리아 역 (개정 5판; 서울: 서로사랑, 2004), 179-80.

하는 토크의 주제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독교: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 ② 예수님은 누구신가?
- ③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 ④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 ⑤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 ⑥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 ⑦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 ⑧ 성령님은 누구신가?
- ⑨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 ⑩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 ⑪ 어떻게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을까?
- ⑫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 ⑬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 ⑭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 ⑮ 교회란 무엇인가?

필자는 투산영락교회에서 알파를 진행할 때에 토크 ①은 알파코스의 끝인 알파 축하만찬에 사용하였고, 토크 ⑧, ⑨, ⑩, ⑪은 주말 수양회에서 행하였다. 이 주제들은 필자가 알파코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크의 주제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며 ⑬을 통해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 소그룹 토의

소그룹의 첫째 목적은 게스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돕는 것이다. 소그룹의 사이즈는 12명이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참가자들은 성경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소그룹에 소요되는 시간은 너무 길지 않는 것이 좋다. 45분 정도가 적당한데 그룹의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더라도 시간이

되면 다음 주로 넘길 수 있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을 넘기게 되면 이것이 참가자들에게 부담을 주어 그들이 다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산영락교회에서는 소그룹리더가 모임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토의 준비를 시키고 있다. 토의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한 사람의 발언 시간을 정해 주고 시간이 넘으면 신호를 보내겠다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주도하지 않아야 하며 발언자가 다수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이야기의 흐름과 무관하게 말하는 것을 정중하게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리더는 참가자에게 열린 질문을 해야 한다. 또 리더는 그룹원들이 발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교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리더는 불신자나 초신자들을 소외시키는 기독교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주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거나 그룹원 중에 어떤 사람이 해답을 찾도록 제안할 수도 있다. 리더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할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룹 중 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는 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리더는 간단한 기도를 제안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이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5. 알파 성령 수양회

알파코스에서 주말에 갖는 성령 수양회는 매우 중요하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배울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투산영락교회의 경우 참가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친구들을 다음번 코스에 초대하게 되었다. 결국 교인의 성령 충만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게 한다. 박종순은 성령운동이 한국교회의 급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⁷⁷⁾

알파에 생명력을 불어 넣은 것은 주말 성령 수양회를 통해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다. 참가자로 하여금 성령충만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협력 기도자가 필요하다. 성령수양회에 실시하는 주제 토크는 성령충만을 위한 지적 필요를 채워주고 훈련된 협

77) 박종순, *21세기의 도전과 성장 목회*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8), 49.

력 기도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와준다. 기도의 분위기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의 정도가 좌우한다. 마치 기도원에서는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방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의 분위기가 쉽게 조성되는 것과 같다.

투산영락교회는 성령 수양회 기간 동안에 참가자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한다. 세족식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다. 성령 수양회는 보통 2박 3일의 여유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민 교회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투산영락교회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1박 2일의 기간으로 성령 수양회를 실시하였다. 수양회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6. 알파코스 간증

간증은 알파코스를 진행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활용된다. 알파축하만찬 때나 알파예배 그리고 게스트 예배에서 모두 알파코스를 통해 삶이 변화된 수료자의 간증이 필요하다. 간증은 세 부분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첫 번째 부분에는 알파를 참석하기 전에 자신과 삶이 어떠했는지, 다음으로 알파코스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알파코스에 참여하고 어떤 변화가 자신과 삶에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 알파코스의 간증문을 작성할 때에는 위에서 소개된 간증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하되 알파코스과 잘 연관을 지어야 한다. 알파코스의 간증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과 더불어 알파코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투산영락교회에서는 축하만찬의 시간과 알파코스가 끝난 다음 주일 2부 예배시간에 간증을 시켜 많은 참여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

제 3 절 바나바 사역

1. 전도 중심적 목회에서의 바나바 사역의 위치

교회는 새 가족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더불어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투산영락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나바 사역이다. 바나바 사역은 훈련된 요원을 통해 새 가족의 정착을 돕는 것이다. 투산영락교회는 바나바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바나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찾아온 새 가족들을 방치함으로 인해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다. 교회는 새 가족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투산영락교회는 새 가족이 나가는 것을 막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 ‘바나바 사역자’를 양성하고 그 ‘바나바 사역자’를 통해 새 가족들을 섬기도록 하고 있다. 투산영락교회는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바나바 교육을 실시하여 교회가 새 가족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왔다.

2. 바나바 사역이란 무엇인가?

바나바 사역이란 새 가족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사역이다.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과 이미 교회에 정착한 교인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역인데, 바나바 교육을 마친 수료자들은 바나바 사역부에서 연결시켜준 새 가족을 7주간 동안 보살핀다. 새 가족은 바나바 사역자로부터 교인들을 소개 받기도 하고 교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도 한다. 바나바 사역자들이 새 가족을 맞이하는 활동을 통하여 투산영락교회는 환영의 분위기가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3. 바나바 교육

가. 바나바 교육을 위한 준비

투산영락교회의 바나바 교육은 교육기간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일정을 계획하면서 시작된다. 바나바 사역자 지원서를 분명한 마감일을 정하여 배부하고 (부록 1 참조) 후보와 현수막을 만들어 바나바 지원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한다. 바나바 교육 교재 및 사역에 필요한 자료는 예상 인원에 따라서 ‘바나바교육원’에서 주문하여 사용한다.

바나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점검하며 준비할 내용은 바나바 출석부와 바나바 교육과 관계된 필요한 서식들이다. 또한 바나바 교육을 위한 장소를 내정하고 미리

장식해야 한다. 교육 장소는 노트할 수 있는 테이블을 갖춘 곳이 효과적이다. 섬김의 주제를 가진 찬송을 교가로 정하고 강의 시작 때 함께 부르면 교육열을 더 높일 수 있다. 바나바 교육 4주 후부터는 바나바들이 앞으로 새 가족을 만나서 사역할 현장을 대비하여 교육시간에 미리 실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강의 도중에 갖는 휴식 시간에 바나바 훈련생들이 차례대로 봉사하여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친교 시간을 갖도록 한다.⁷⁸⁾

나. 바나바 교육의 실제

투산영락교회는 담임목회자가 직접 바나바 교육을 실시하며 교재에 따라 준비된 강의를 진행한다. 첫째 시간에서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강의를 마친 후에 참가자들로 하여금 사역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부록 2 참조). 둘째 시간에서 넷째 시간까지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을 가르친다. 바나바의 활동은 교회가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에게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시간과 여섯째 시간에는 참가자들에게 바나바 사역 시에 사용할 교재에 대하여 가르친다. 바나바 교육의 마지막 시간인 일곱째 날에는 강의에 대한 질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부록 3 참조).

다. 수료식

투산영락교회는 수료식을 주일 대 예배 시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료자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참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수료식에 사용할 자료들은 수료증, 임명장 그리고 배지이다. 수료자가 많을 경우는 배지를 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봉사자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수료식 후에는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한다.⁷⁹⁾ 바나바 교육을 수료한 바나바 사역자들은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올 때 그들을 돕도록 배치된다. 새 가족에게 바나바 사역자가 배치되면 바나바 사역자는 7주간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78) 김명남, *바나바사역 운영지침서* (서울: 바나바교육원, 1998), 9-14.

79) Ibid., 15-20.

4. 바나바 사역의 실제 - 바나바 사역자가 새 가족을 일대일로 돕는 사역

가. 새 가족부와의 긴밀한 협력

투산영락교회에는 새 가족을 돕기 위한 사역 부서로 ‘새 가족부’와 ‘바나바 사역부’를 운영하고 있다. ‘새 가족부’의 주요 업무는 교회당 입구에서 새 가족을 환영하고 접수하는 일을 하고, 두 개의 방문카드를 복사하여 하나는 예배의 광고 시간에 새 가족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헌금위원을 통해 담임목회자에게 인계하고 다른 하나는 새 가족에게 바나바 사역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바나바 사역부에 전달하는 일이다. 새 가족부는 새 가족의 숫자에 맞게 새 가족을 위한 교재를 교회 안내서 및 기타 인쇄물이 담긴 선물 가방과 함께 새 가족 환영실에 비치하고, 새 가족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영실을 준비하는 일을 맡는다. 바나바 사역부는 새 가족부로부터 방문카드를 인수 받음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

나. 바나바 사역 담당자의 역할

바나바 사역부의 담당자는 접수된 방문카드를 새 가족부로부터 전달받은 후 ‘바나바 신상명세서’(부록 4 참조)를 참고하여 적당한 바나바 사역자를 새 가족을 위해 선정하여 ‘바나바 배치표’에 기록한다(부록 5 참조). 이 때에 바나바 사역자는 가능하면 새 가족과 같은 목장에 소속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를 배정한다. 바나바 사역부의 담당자는 그 날의 ‘바나바 배치표’를 헌금위원에게 인계하여 담임목회자가 광고 시간을 통해 새 가족과 함께 바나바 사역자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새 가족 환영실 운영

새 가족부 요원들은 미리 새 가족 환영실을 꾸며 놓고 예배가 끝나는 대로 새 가족들을 환영실로 안내한다. 새 가족 요원들은 환영실에 비치된 선물 가방을 새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담임목사와 바나바 사역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새 가족들을 접대한다. 담임목회자는 새 가족실에 오면 ‘바나바 배치표’를 참고하여 담당 바나바 사역자들을 새 가족에게 소개하고 바나바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것인지 설명해 준다. 교회소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상영한다. 새 가족부 요원 중 사진

담당자는 새 가족을 담임목회자와 바나바 사역자와 함께 촬영한다. 사진 촬영이 끝나면 준비된 다과나 음식을 나누며 환담한다.

라. 7주간의 바나바 활동

바나바 사역자는 자신이 맡은 새 가족에게 교회생활을 안내하고 일주일에 세 명씩 교인들을 소개하도록 한다. 주중에 한 번 전화 연락을 하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바나바 사역자는 새 가족을 섬긴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바나바 사역일지에 기록하여 바나바 사역실에 비치함으로써 바나바 사역 부장이 매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⁸⁰⁾

마. 새 가족 환영행사

바나바 사역 부장은 바나바 사역자들로부터 7주간의 섬김을 마쳤다는 보고를 받으면 담임목회자에게 알려 예배 광고시간에 축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는 교회에 잘 정착한 새 가족을 위해 선물할 수 있도록 바나바 사역부에서 꽃을 준비해야 한다. 담임목회자는 광고시간을 통해 새 가족과 함께 바나바 사역자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바나바 사역 담당자는 바나바 사역자의 7주간의 섬김이 진행되는 동안 목장관리 사역자와 의논하여 새 가족을 목장으로 편성하고 목장편성 상황표를 예배시간에 헌금위원을 통하여 담임목회자에게 전달한다. 담임목회자는 축하의 꽃 전달과 함께 새 가족에게 지정 배치된 목장과 목장의 리더를 소개한다. 목장리더는 예배가 끝나는 대로 바나바 사역자로부터 새 가족을 인계 받아 함께 식사를 하며 목장모임을 소개한다. 특별히 새 가족이 목장에 편성되어 첫 목장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새 가족 환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투스산영락교회는 새 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새 가족 환영파티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는 일정 기간 동안에 들어온 새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공동체 의식을 갖는 날이다. 예배와 더불어 잘 준비된 환영행사는 새 가족들이 확실히 교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80) 김명남, *바나바사역 운영지침서*, 21-31.

제 4 절 양육시스템

1. 전도 중심적 목회에서의 양육시스템의 위치

서정운은 한국 교인들의 영성이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성(privatization)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사적이고 자기가정, 개 교회 등을 축으로 한 자기중심적인 신앙 영성의 차원에서 더욱 성숙해야 한다고 말한다.⁸¹⁾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좇아 살아야 한다. 특히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산영락교회는 전도 중심적 목회를 위한 기반다지기로서 정착교인을 사명자로 세워가는 ‘양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양육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양육시스템은 투산영락교회가 새들백교회의 핵심 훈련 프로그램인 멤버십 클래스(101) 성숙클래스(201) 사역클래스(301) 사명클래스(401) 등의 4단계의 클래스 과정을 도입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자 곧 사명자로 세워가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투산영락교회는 이 양육시스템을 통해 정착교인으로 하여금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여 등록교인(member)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며, 나아가 교회와 사회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사역자로, 더 나아가 전도중심 목회의 핵심사역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고자 한다.

3. 양육시스템의 교육과정

가. 비전클래스(멤버십 클래스)

비전클래스의 목적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교회의 멤버십을 갖게 하고 영락가족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 비전클래스는 네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단원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는 구원에 대하여, 제2단원의 제목은 ‘우리의 선포’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제3단원의 제목은 ‘우리의 전략’으로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제4단원의

81) 서정운, *교회와 선교*, 90-91.

제목은 ‘우리의 구조’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에 대하여 가르친다.

(1) 제1단원: 우리의 구원

제1단원의 교육목표는 새 가족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특히 제1단원에서는 참가자들이 죄와 복음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멤버로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는 세례와 성찬이 가시적(可視的) 행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가르치고 있다. 세례와 성찬은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며 손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 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찬이야 말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방편으로서 온라인으로는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다.

(2) 제2단원: 우리의 선포

제2단원의 교육목표는 투산영락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중요한 믿음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투산영락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의 큰 계명과 대 사명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특히 양육시스템의 교육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전도자 곧 사명자로 서는 것임을 참가자들에게 확인시킨다.

(3) 제3단원: 우리의 전략

제3단원의 교육목표는 투산영락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전략은 전도대상자들을 멤버로 이끄는 ‘성장전략’과 멤버를 사명자로 이끄는 ‘성숙전략’이다.

3단원의 교육목표의 첫 부분으로써 ‘성장전략’은 ‘전도대상자들을 이해하는 것’과

‘그들에게 접근하는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투산영락교회의 전도대상자들은 일차적으로 투산영락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여 어떤 교회에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미국교회에 출석하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 유학생을 비롯하여 정착초기에 있는 사람들 등 크리스천이지만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투산영락교회의 이차적 전도대상자들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 살고 있어서 투산영락교회에 출석할 수 없지만 장래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올 계획이 있어서 투산영락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투산영락교회의 전도대상자들은 대체로 유학생, 방문교수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 이사 온 사람들, 그리고 연수과정으로 들어온 군인들이다. 유학생 가운데 박사 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사람들 혹은 방문교수로 온 사람들은 주로 신혼부부이거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다.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코스워크를 마치기까지 낙제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시간에 쫓기며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대체로 남자가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경우 아내는 가사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영어회화의 실력 향상을 위해 성인영어교실(adult school)에 다닌다. 방문교수의 가정은 대체로 생활이 넉넉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취미생활 특히 골프나 테니스 등에 관심이 많고, 자녀들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방문교수나 연수 중인 군인의 가정은 방문기간이 지나고도 자녀들을 남겨두어 계속 유학을 시키기 원한다. 그래서 부모중 하나가 자녀들과 함께 남아 있거나 자녀들만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투산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한인들은 대체로 그 직업이 의류나 식품 및 요식업 그리고 세탁소 등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 및 기술전문직 회사원들도 있다. 대부분 부부가 다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미국인과 결혼한 여성들도 있다. 투산에 정착하여 산 지 10년이 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녀들이 영어권이라 부모 자녀 간의 진지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스도인 부모들 가운데는 15세 자녀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염려하며 그 자녀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성장전략은 먼저 전도대상자들에게 투산영락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다. 우리의 전도대상자들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금까지 이민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못했고 오히려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로 비교인들과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역할 모델(role model)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투산영락교회의 성장을 위한 일반적인 전략들은 전도의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나가는 것, 불신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사용에 힘쓰는 것 등이다. 또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전도대상자들이 등록교인이 되게 하는 방법을 계속 개발하기 위하여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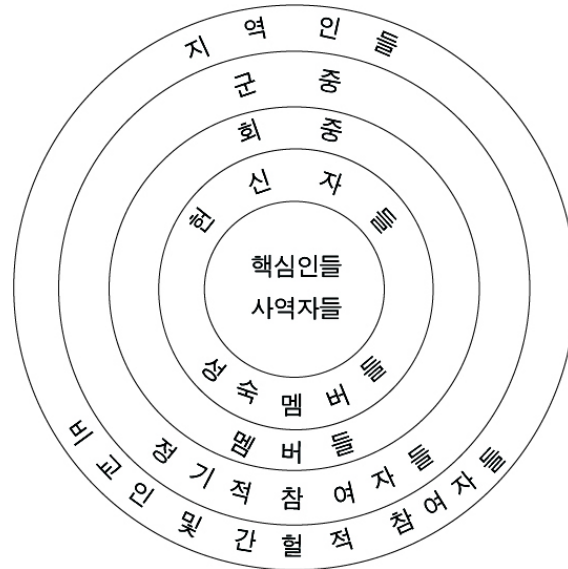
투산영락교회는 전도대상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접근과 목장을 통한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개인적인 접근의 핵심은 ‘전도대상자 명단 작성’이다. 우리는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과 취미활동을 함께 하거나 도울 일을 찾는다. 그들의 경조사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다 기회를 얻어 목장모임에 초대하거나 5배가 전도축제, 알파코스 및 각종 교회의 이벤트에 초청한다.

투산영락교회의 목장은 새 가족을 교회로 오게 하는 중간단계로서 사랑방의 역할을 한다. 목원들이나 전도대상자들의 경조사를 기회로 삼아 목장모임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전도대상자들을 목장모임으로 초대한다. 목장은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의논한다.

3단원의 교육목표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투산영락교회의 ‘성숙전략’은 멤버를 사명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동심원의 원리’와 ‘4가지 헌신의 언약’을 포함한다. <그림 1>의 동심원의 원리⁸²⁾는 양육시스템의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준다. 이 그림은 투산영락교회의 성숙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신자였던 사람들을 핵심 사역자 곧 사명자로 이끌어 가기 위한 단계적 목표를 보여준다. 성숙의 방향은 원의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다.

82)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사역 세미나*, 김성수 역 (강의안; Los Angeles, Summer 2005), 31.

<그림 1> 동심원



4가지의 헌신의 언약은 멤버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다. 멤버들은 양육시스템의 각 과정을 거치면서 지체를 위한 헌신과 성숙을 위한 헌신과 사역을 위한 헌신 그리고 사명을 위한 헌신을 언약한다. 우리가 헌신의 언약을 하는 이유는 사람은 헌신하는 대로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이다. 지체언약은 비전클래스, 즉 멤버십 클래스를 마치면서 ‘그리스도와 투산영락교회 가족’에 헌신하겠다는 언약이고, 성숙언약은 ‘영적 성장에 필요한 습관들’에 대한 헌신의 언약이며, 사역언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과 재능들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언약이고, 사명언약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한 헌신의 언약이다. 클래스에 참여하는 멤버들은 언약 이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과제 실천 후에 각 과정을 마친다.

(4) 제4단원: 우리의 구조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조가 필수이다. 그래서 제4단원의 교육목표는 ‘교회의 구조의 본성과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의 의미를 배우고 멤버십을 위해 헌신의 언약을 행하는 것’이다.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등록교인이 되는 것으로 멤버십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멤버십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멤버십 언

약이 필요하다(부록 6 참조). 멤버십 언약을 하는 이유는 교회의 멤버가 헌신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보다 진지하고 충성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멤버십 언약의 내용은 교회의 하나 됨을 지키고 교회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것,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여 섬기겠다는 것, 교회의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겠다는 것이다.

나. 성숙클래스

성숙 클래스의 목적은 투산영락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들이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성숙 클래스의 초점은 영적 성숙을 위해 개발시켜야 할 네 가지 기본 습관에 있다. 영적 성숙은 훈련을 필요로 하며 성숙클래스는 이를 위한 네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모시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습관들로서 제1단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습관,’ 제 2단원은 ‘기도의 습관,’ 제 3단원은 ‘십일조의 습관,’ 제 4단원은 ‘교제의 습관’이다.

(1) 제1단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습관

제1단원의 교육목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QT의 습관’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투산영락교회에서는 성경을 하루에 3-5장씩 읽음으로써 1년에 1독을 하도록 권한다. 또한 1주에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6년 동안 300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습관을 확고히 하기 위해 QT를 권장하고 있다.

(2) 제2단원: 기도의 습관

제2단원의 교육목표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바른 기도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기도를 가르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훈련한다.

(3) 제3단원: 십일조의 습관

제3단원의 교육 목표는 ‘십일조의 의미’를 배우고 ‘십일조의 습관’을 위해 십일조를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참가자에게 ‘바른 헌금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지 가르치고 바른 헌금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의도한다. 또한 재정의 풍부함을 통해 각종 전도 사역을 넉넉히 지원하도록 목표한다.

(4) 제4단원: 교제의 습관

제4단원의 교육목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하여 함께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제의 습관’을 위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성도간의 교제를 위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일깨우고자 한다. 투산영락교회는 소그룹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살리는 일’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살리는 일’은 소그룹을 통한 전도를 의미하고, ‘세우는 일’이란 연합하고 어린 성도들이 사명자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소그룹의 역할을 의미한다.

다. 사역클래스

사역 클래스의 목적은 성숙클래스를 마친 사람들이 자신의 형상에 따른 사역의 영역을 발견하게 하고 투산영락교회의 사역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사역클래스는 두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단원은 ‘나의 형상 발견,’ 제2단원은 ‘나의 사역’으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그의 형상(shape)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각자에게 형상을 주셨다. 각자의 타고난 자신의 재능들과 성품들, 영적 은사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삶의 경험들이 그의 형상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상을 연구하면 자신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상에 따른 사역을 할 때 성취감(fulfillment)과 생산성(fruitfulness)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에 임할 때 기관적(institutional) 접근이 아닌 개인적(individual)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1) 제1단원 나의 형상 발견

제1단원의 교육목표는 자신의 형상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개인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들 중에 자신이 갖고 있는 구체적 특성들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획하신 사역의 분야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2) 제2단원 나의 사역

제2단원의 교육목표는 ‘교회의 사역을 위한 전략’을 배우고 ‘투산영락교회에서 현재 사역의 기회들’을 살핀 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중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투산영락교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역의 기회들은 본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팀과 부서로 조직된 활동들에서 찾을 수 있다(부록 7 참조).

투산영락교회는 사역팀 및 부서조직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10개 팀 41개의 사역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팀과 41개의 부서는 투산영락교회의 5대 비전인 교회의 5가지 존재목적에 뒷받침하는 것으로 교인들 대부분이 사역에 참여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행 초기에는 부담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교인의 약 50 퍼센트 정도가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라. 사명 클래스

사명클래스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시간, 능력,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인생을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명클래스는 네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단원은 ‘나의 인생 사명 발견,’ 제 2단원은 ‘메시지 나눔,’ 제 3단원은 ‘나의 전도 연못에서의 낚시,’ 제4단원은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인’이다.

(1) 제1단원: 나의 인생 사명 발견

제1단원의 교육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내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의 지상 사명'이 전도임을 분명히 하고 참가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인생 사명을 발견하도록 의도한다.

(2) 제2단원: 메시지 나눔

제2단원의 교육목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에 관해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3) 제3단원: 나의 전도 연못에서의 낚시

제3단원의 교육목표는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 전도대상자들의 '영적 수용성에 따른 대처법'을 배우고 '친구관계의 다리를 세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전도대상자에 대해 더 잘 알면 알수록 전도자는 더 쉽게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심들, 필요들, 그리고 상처들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게 한다. 전도대상자들과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성공적인 전도자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4) 제4단원: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인

제4단원의 교육목표는 '세계를 향한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선교사명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깨닫고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선교 사명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선교사명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이 있도록 이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을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자신의 생각을 지역 지향에서 세계지향으로, 임시적 가치들에서 영원한 가치들로, 보호(security)에서 섬김(service)으로, 편안(comfort)에서 희생(sacrifice)으로 전환해야 한다.⁸³⁾

83)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사역 세미나*, 34-46.

제 6 장

투산영락교회의 전도 중심 목회 핵심사역

전도 중심적 목회를 통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사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투산영락교회는 이 핵심사역을 이루기 위한 준비단계로 알파사역과 바나바 사역 그리고 양육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전도 중심적 목회의 기반을 다져왔음을 5장에서 기술하였다. 6장에서는 전도 중심적 목회의 핵심 사역인 ‘5배가 전도축제’와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 ‘문화 사역을 통한전도’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5배가 전도축제’는 투산영락교회의 ‘찾아가는 전도’의 중요한 방법이고,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와 ‘문화 사역을 통한전도’는 ‘불러들이는 전도’로서의 중요한 방법이다.

제 1 절 5배가 전도축제

1. ‘5배가 전도축제’의 의미

‘5배가 전도축제’의 의미는 한 사람이 네 명을 전도하여 5배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과 전도가 축제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에서 전도대상자 구별의 힌트를 얻었다. 투산영락교회는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나름대로 전도대상자를 4단계로 구별하였다.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관계에 따른 전도 용이성의 정도이다.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1단계는 가족 중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온 유대에 해당하는 2단계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다. 사마리아에 해당하는 3단계는 자신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집이나 직장 그리고 취미 활동지에서 자

주 접촉하고 있는 구면의 불신자들이다. 4단계는 한인마켓이나 코스코(Costco)와 같은 대형마켓과 대학 등 한국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전도 타깃 지역에서 만나는 초면의 불신자들이다. 이와 같이 전도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먼저 네가지 단계의 범위를 면밀히 살펴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을 VIP로 선정하여 관계전도를 시도한다.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된 전도 대상자들은 23페이지에서 언급한 라이너 척도에 따라 또다시 5단계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복음에 매우 열려 있는 U1단계부터 가장 닫혀 있는 U5 단계까지 지혜롭게 전도 할 수 있도록 한다.

2. '5배가 전도축제'를 위한 준비

가. 전도 중심적 목회를 위해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명성훈은 목회의 대상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눈다. 양육목회(discipleship), 갱신목회(renewal), 전입목회(transfer) 그리고 회심목회(conversion)이다. 양육목회는 교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다. 갱신목회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이다. 전입목회는 복음 안에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목회이다. 회심목회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영접하지 않는 전적인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목회이다.⁸⁴⁾ 전도 중심적 목회에서 집중하는 목회의 대상은 회심목회이다.

현재 이민 목회는 양육목회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열정적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스티븐 마키아(Stephen A. Macchia)는 “건강한 교회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며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다”라고 했다.⁸⁵⁾ 전도중심목회를 하려면 회심목회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전도 중심적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목회자에게 전도에 대한 분명한 목회철학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의 열정은 그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성희는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에 대해 분석하면

84) 명성훈, *교회성장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311-18.

85) Stephen A. Macchi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Becoming a Healthy Church)*,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161.

서 목회자의 대가 지불에 대하여 가장 먼저 서술하고 있다.⁸⁶⁾ 목회자의 전도에 대한 열정은 전도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어트리(C. E. Autrey)는 “오늘날 복음 전도에 있어서 크게 요구되는 것은 목회자의 복음전도이다. 이 말은 목회자의 복음전도 없이는 성도들의 복음전도나 그 어떤 복음 전도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⁸⁷⁾ 전도 중심적 목회를 위해서는 목회자부터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가 본을 보이지 않고 성도들에게 전도를 강요만 한다면 전도중심 목회는 불가능하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전도의 모본을 보이셨다. 명성훈은 목회자의 개인전도가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다수의 목회자는 신학교에서조차 전도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고 또한 본격적인 의미의 전도를 실천해 보지 못하였기에 두려워하여 전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전도중심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는 전문적인 전도 훈련 기관을 통해 개인전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
88)

투산영락교회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전도하는 교회이다. 전도기간이 되면 목회자들은 한국마켓과 근처 대학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코스코(Costco) 등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 전도하러 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

목회자의 전도 열정의 근원은 그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받은 은혜이다. 류영모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고 고백적으로 서술한다.⁸⁹⁾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능력을 얻어야 한다. 전도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자원함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⁹⁰⁾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복음전도를 ‘넘쳐흐르는 것(overflow)’으로 정의했다.⁹¹⁾ 목회자에게 영혼구원에 대한 사랑 즉 영적 동정심이 가득하여 넘칠 때 복음전도가 일어나고, 교회는 그러한 목

86)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개정 7판;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7), 31.

87) C. E. Autrey, *기본전도학 (Basic Evangelism)*, 정진황 역 (서울: 요단, 2000), 81.

88) 명성훈, *교회성장마인드*, 316.

89) 류영모, *꿈대로 되는 교회* (개정 5판; 서울: 나침반, 2000), 159.

90) Che Ahn, *강력한 능력 전도의 비결 (Fire Evangelism)*, 광정남, 김도현 역 (서울: 순전한 나드, 2006), 24-34.

91) Macchi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269.

회자를 통해 진정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원리이다.

전도에 대한 분명한 목회철학과 열정에 더하여 전도 중심적 목회의 성공을 위해 목회자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덕목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서정운은 새 시대의 도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 요건으로 비전, 독창성, 용기, 그리고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교회가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분명한 목회의 목표를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조와 사역 형태를 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구조는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또 목회자는 비전과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통과 관례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리더십은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애정과 존경심에서 발원한다. 목회에는 관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목회자가 행정적이기보다는 인격적일 때 참된 영적지도자가 될 수 있다.⁹²⁾ 진 우드(Gene Wood)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지도자들은 ‘리더십’을 ‘섬김의 행위’로 받아들인다”고 서술했다.⁹³⁾ 이 말은 결국 ‘섬김의 리더십’이 목회자의 전도 중심적 목회철학과 그의 열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적인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나.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재확인

제임스 민즈(James Means)는 모범된 목회를 하기 위하여 목회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목회자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모범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교회도 성장하지 못한다. 목회자는 만능선수가 아니다. 자신의 역할을 신중하게 정하고 제한된 목회 영역에서 탁월성을 발휘하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⁹⁴⁾

92) 서정운, “한국교회 목회진단과 그 처방,” *한국교회 진단과 그 처방*, 이종윤 편 (서울: 요단, 1996), 40-41.

93) Gene Wood, *교회성장형 리더십 체크리스트 (Leading Turnaround Churches)*, 박원영, 김진기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2), 152.

94) James Means,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Effective Pastors for a New Century)*, 배현석, 김웅국 역 (개정 4판; 서울: 나침반, 1998), 117-39.

제임스 민즈는 목회자의 역할을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의 영적인 복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복음화하고 유혹받는 자들을 든든히 지키며 실족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격려하며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계시의 수호와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즉 목회자의 거룩한 책임은 올바른 교리의 수호자, 성경적 진리의 옹호자가 되는 것이다. 넷째, 능력 있는 목회자의 역할은 비전의 안내이다. 목회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목회자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영향력 있게 만든다. 다섯째, 세계의 상황을 잘 살피며 그리스도의 사명인 선교를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여섯째로,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와 지역 공동체 안에서 견고한 ‘공동 목회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목회 사역에서 전지전능한 슈퍼스타의 시대는 지나갔다. 혼자 힘으로는 복잡한 과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이 중요하다.⁹⁵⁾ 전도중심의 목회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목회자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할 것이다.

다. 전교인이 참여하는 전도

김상현은 전도중심형 교회를 “일부 교인만 전도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다수 교인이 모두 전도에 참여하게 하는 교회”라고 진술한다.⁹⁶⁾ 교인들의 참여도는 전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온누리 교회를 담임했던 하용조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교회 안에 전도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전도부라고 나는 확신한다. 교회의 모든 철학을 그렇게 세워야 한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⁹⁷⁾ 투산영락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전도를 실천하는 교회이다.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전교인이 참여하는 전도를 지향하고 있고, 전도 참여가 사역자들로부터 점차 교인에게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전도중심 목회의 기반다지기 사역들도 교인들의 전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오브리 맬퍼스(Aubrey Malphurs)는 사

95) Means,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139-50.

96) 김상현, *전도중심교회* (개정 6판; 서울: 프리셉트, 2007), 97.

97)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개정 2판; 서울: 두란노, 2007), 42.

역을 위해 평신도를 무장시키고 동원하는 것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개 교회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고, 영혼구원 받게 해야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제자 되게 하고, 교역을 위해서 동원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역을 위해 무장 받고 동원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건강하다고 말한다.⁹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헌신적으로 사역하여야 하지만 전 교인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3. ‘5배가 전도축제’의 목표설정

가. 목표 인원 설정

‘5배가 전도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목표는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명성훈은 그의 책 *명품 교회성장*에서 “목표는 믿음의 언어요, 비전의 옷이다. 보이지 않는 믿음 혹은 비전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나타내는 것이 목표다. 믿음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목표설정이다”라고 말하였다.⁹⁹⁾ 그는 또 *교회 개척의 원리와 전략*이란 책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키기 원한다면 3년 안에 장년출석 300명 이상을 목표로 하라고 말한다.¹⁰⁰⁾ 또 레이너(Thom S. Rainer)는 교회성장 전문가 와그너(C. Peter Wagner)가 목표설정과 믿음을 등식화 했다고 말한다.¹⁰¹⁾ 지도자는 목표를 설정하는 자이다. 목표를 정하면 이제부터는 그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된다. 또한 조용기도 그의 책 *교회성장 진정 원하십니까?*에서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전선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막연한 소원만 가지고 부르짖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교회 성장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우리 교회의 교직원들과 지역장, 구역장, 일반성

98) Aubrey Malphurs, *21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skins)*,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6), 224-25.

99) 명성훈, *명품 교회성장*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12.

100) 명성훈, *교회 개척의 원리와 전략* (개정 6판; 서울: 국민일보, 1999), 243.

101) Thom S. Rainer, *교회 성장 교과서 (The Book of Church Growth)*, 홍용표 역 (개정 3판; 서울: 예찬사, 2004), 321.

도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한다. 전교인이 집중적으로 시간과 재원과 힘을 쏟아 부으며 추진해 나간다. 우리는 목표와 관계없는 일에는 재원과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한 그 위에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항상 차고 넘치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¹⁰²⁾

릭 위렌은 새들백교회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교인들의 출석에 대해 목표를 세웠던 것은 단지 두 번뿐이었다고 서술하는데¹⁰³⁾ 이것은 그가 목표설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통해 단지 교회가 출석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캠페인이나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계획하는 것을 경고할 뿐이다. 오히려 그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목회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결국 이것은 교회에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도 자신이 꾀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였는데(빌 3:14), 이 말씀은 바울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달음박질이 헛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도자의 진정한 목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전도대상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다.

목표가 정해지면 자신과 자신의 목장이 감당해야 할 수준까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더욱 분발하게 된다. 육상선수는 달려가야 할 결승지점이 있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다. 계속 달려도 끝이 없는 목표라면 지쳐서 달음박질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달려갈 목표가 없다면 경주의 의욕을 상실할 것이다. 목표지점은 완주한 자에게 성취감을 준다. 또 목표지점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목회자의 격려를 통해 더욱 분발할 수 있다. 하용조는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그 ‘2천/1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다. 그 비전을 선포했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 비전이 없었다면 지금 온누리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라고 회술 한다.¹⁰⁴⁾

분명하고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전도를 위한 도전의식을 불어넣고 전도

102) 조용기, *교회성장 진정 원하십니까?* (서울: 서울서적, 1995), 14-15.

103)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61.

104)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293.

자 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세워진 목표로 인해 교인들이 지나치게 의무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히려 영적동정심과 자원적인 섬김의 마음을 가지도록 목회자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용조는 온누리교회의 비전인 ‘2010년까지 2천 명의 해외 선교사를 보내고, 1만 명의 사역자를 전국에 보내자’라는 목표가 구체화된 것이 1994년이었고, 그 때 온누리 교회는 성령사역을 거친 뒤 거룩과 순결을 핵심으로 삼아 교회가 매진할 때였다고 한다.¹⁰⁵⁾

투산영락교회는 ‘5배가 전도축제’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네 명을 전도하는 것을 기본적인 개인전도의 목표로 삼고 있다. 목장별 목표는 목원들의 숫자 곱하기 4이다. 목장별 목표를 세우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아직 잘 전도하지 못하는 목원들을 도와 함께 목표달성에 힘쓰자는 의미이다. 목장이 함께 목표를 위해 달려갈 때 어떤 이는 직접 전도하는 사람으로 다른 이는 옆에서 도우미의 역할로 협력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투산영락교회의 지나온 7년간의 개인과 교회 전체의 전도목표이다.

<표 1> 투산영락교회 전도목표 현황¹⁰⁶⁾

시행년도	개인별 목표	각 목장별 목표	전체 전도 목표	Youth Group (별도)	주일학교 (별도)
2004년	개인별로 4명씩	목장 없었음	50명	5명	5명
2005년		15(목장별 목표) ×4(목장수)	60명	10명	10명
2006년		15×6	100명	10명	10명
2007년		15×5	80명	10명	10명
2008년		20×5	100명	10명	10명
2009년		20×5	100명	10명	10명
2010년		20×8	160명	20명	10명

105)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292.

106) 이 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투산영락교회가 개인별 및 목장별로 전도 목표를 세웠던 데이터들이다. 목장별 목표와 Youth Group의 목표 및 주일학교의 목표들의 합계는 전체 목표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았다.

나. '5배가 전도축제'의 기간 설정

나원용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불신자와의 접촉은 성도에게 귀중한 전도의 기회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¹⁰⁷⁾ 전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양식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며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도기간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평상시에 접촉하고 관계를 맺어왔던 전도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기 쉬운 것과 같다. 새들백교회는 특별 절기 등을 이용해 대규모 전도대회를 개최한다. 'Bridge Event'라는 전도대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를 통해 교회와 지역 사이에 다리를 놓아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전도의 기회를 삼자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¹⁰⁸⁾ 새들백교회의 'Bridge Event'처럼 잘 준비된 특별행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전도에 집중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전도기간을 정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전도의 사명을 잊기 쉬운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준다.

충신교회나 주안장로교회는 총동원행사 기간이 4주 정도이나, 투산영락교회는 매년 10주에서 12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5배가 전도축제'를 시행한다. 투산영락교회의 '5배가 전도축제'는 '총동원행사'와 다르다. 총동원행사는 D-day를 정해 놓고 4주간에 걸쳐 전도대상자들을 만나다가 행사 당일에 한꺼번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지만, '5배가 전도축제'는 전도 기간 중 교회에 예배가 있는 시간이면 언제라도 데려 올 수 있다. 그래서 '5배가 전도축제'는 교인들이 새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총동원행사는 많은 참가자들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하루에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인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외의 예산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¹⁰⁹⁾ 예를 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부족한 예배실을 확보해야 하고 별도의 음향시설 및 영상시설을 해야 한다.

그러나 '5배가 전도축제'의 형식은 새 가족들의 분산 방문으로 인해 교인들이 더욱 세심하게 그들을 배려할 수 있고, 주마다 늘어나는 새 가족들로 인해 미처 전도하

107) 나원용, 전도는 이렇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39.

108) 박건, 현장에서 본 새들백교회 (재판;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9), 170.

109) 박중순, 전도, 하면 된다 (서울: 홍성사, 1989), 56-61.

지 못한 교인들의 사기가 진작될 뿐 아니라 교회가 축제의 분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전도기간 후에도 교인들은 그동안 계속 되었던 훈련으로 인해 영적 동정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전도를 실천한다. ‘5배가 전도축제’는 별도의 예산도 공간 확보도 필요 없다. 다만 전도분위기를 위한 교회장식에 드는 소액의 비용만 요구될 뿐이다.

다. 전도대상자 선정

나겸일은 “주안장로교회가 총동원전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에는 전도대상자 선정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하며 전도대상자 선정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¹¹⁰⁾ 전도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자신이 전도할 대상을 카드에 기록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투산영락교회가 5배가 전도축제 때에 사용하는 전도대상자 카드이다. 교인들은 한 장의 카드에 전도대상자들을 다 적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카드는 작성한 후에 본인이 한 장을 가지고 한 장은 복사하여 전도부로 제출한다.

110) 나겸일, *전도 집중 교회로 만들라*, 83.

<표 2> 투산영락교회 전도대상자 명단

이 름:

예루살렘 (가족)	가족 중 믿지 않는 사람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손자	1. 2. 3. 4. 5.
유다 (밀착이웃)	가까운 친척, 친구, 동향사람 세입자 또는 직장상사 친목회원, 직장동료, 동창생, 함께 교회에 다녔던 분들	1. 2. 3. 4. 5.
사마리아 (근거리 이웃)	믿다가 낙심한자(장기 결석자) 단골집, 인근 관공서 직원, 근거리 가게 손님, 직장에 찾아오 는 손님, 자녀 친구의 부모, 사업상 만난 사람	1. 2. 3. 4. 5.
땅 끝 (원거리 이웃)	마켓에서 처음 만난사람 거리에서 만난 사람, 각종 취미그 룹에서 만난 사람, 공원에서, 기타	1. 2. 3. 4. 5.

평소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면 되고, 미처 전도하지 못하던 사람이라면 전도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면 된다. 막연하게 전도에 나서면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전도대상자카드의 안내에 따라 교회에 나오다가 실족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의 목장이나 주변에서 장기간 교회에 결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차근차근 생각하며 적다보면 전도할 사람들이 발굴 된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은 전도대상자카드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의 많은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 전도대상자를 확보하면 된다. 이는 필자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전도의 중요한 원리이다. 100명의 전도 대상자를 가진 사람이 전도한 결과와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가진 사람의 전도한 결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대상자의 명단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야 한다.

라. 전도와 타깃 지역

투산에는 2,000여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 미국의 31대 도시로서 주변도시를 포함해서 인구 백만을 가진 투산은 전체 인구 대비 한인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투산에서 한인전도를 위한 타깃 지역으로 분류되는 장소들은 주로 제2절 ‘5배가 전도축제의 의미’에서 제시된 마지막 4단계의 장소들로서 한인 불신자들을 첫 대면하기 쉬운 곳이다. 타깃 지역 전도를 위해서는 교인들이 주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전도하러 간다. 한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한국인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은 한인마켓이다. 투산에는 한인마켓이 네 곳, 아시안 마켓이 두 곳 있다. 한국음식점도 전도하기 좋은 곳인데 투산에는 두 곳 밖에 없다. 대신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본음식점들이 여러 곳 있다. 그 외에도 대학이나 코스코(Costco)등의 대형마켓 그리고 스왑밋(Swap Meet),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한인회 행사장, 한인식당 등도 좋은 전도 타깃 지역이다.

효과적인 전도는 평소에 관계를 맺어오던 사람들에게서 가능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마켓에서의 전도는 중요한데, 전도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곳에서 시작되는 첫 만남이 앞으로의 전도 활동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인구가 많지 않은 이민사회에서는 한 번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박영덕은 노방 전도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노방 전도를 비효과적이며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노방 전도의 경험이 있는지를 되묻는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것도 노방전도였다고 주장한다.¹¹¹⁾ 전도자는 많은 전도 대상자를 이런 마켓을 통해 만나게 된다. 첫 만남이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것일지라도 다음에 만날 때는 서로 구면이 되고 반가워진다. 또 첫 만남에서 전도대상자의 연락처를 얻는 데 성공하면 집으로 초청하거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투산영락교회에는 마켓에서 전도하여 등록하게 된 교인들이 많다. 아래의 표는 투산영락교회가 개인 전도를 위해 나가는 전도 타깃 지역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투산에는 적은 인구수로 인해 한인들을 만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한인들이 잘 모이는 장소를 타깃으로

111) 박영덕, *높아진 문화 명령 낮아진 복음 전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70-71.

지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전도를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표 3> 투산영락교회 전도 주요 타깃지역 분포도

전도장소	숫자
한인마켓, 아시안 마켓	5곳
Costco	3곳
백화점	2곳
대학	2곳
테니스장	1곳
골프연습장	1곳
한인회 행사장	1곳
한인식당	2곳

마. 전도와 핵심그룹

전도축제가 성공하려면 다른 교인보다 더욱 열심히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그룹이 필요하다.¹¹²⁾ 핵심그룹의 활동은 전체 교인들의 전도분위기를 돋우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도의 성과는 핵심그룹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고 본을 보이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핵심 그룹은 교회 전도운동에 동기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며 성공적 전도를 위해 중요한 사람들이다. 성공적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 핵심 그룹을 늘려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핵심그룹으로 활동할 만한 인적 자원이 없는 교회라면 목회자가 핵심그룹의 중요 멤버가 될 수 있다. 전도축제의 성공 여부는 초기 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처음에 누군가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면 전도의 성공 분위기가 전 교인들에게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투산영락교회는 목회자 가정을 비롯하

112) 임택진 외, 전도할 수 있습니까, 262.

여 각 목장의 목자들의 가정의 핵심그룹이다. 지금까지 이 핵심그룹의 초기 성과가 교회의 전도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4. 성공적인 ‘5배가 전도축제’를 위한 필요

가. 전도의 동기 부여를 위한 설교

나겸일은 “담임목회자가 직접 목회 전반의 전도일정에 맞춰 전 교인들에게 전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도설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도에 관한 메시지는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전도에 열릴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¹¹³⁾ 이민목회 상황에서는 교인들이 그들의 바쁜 삶을 인해 목회자의 부담스런 전도설교를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뒤로 물러서면 절대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 류영모는 “귀를 뚫어야 입이 열린다.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려면 먼저 그들에게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전도의 결과로 얻는 상급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해 주어야 한다”고 서술한다.¹¹⁴⁾

그 밖에도 이명희는 또 그의 저서 *전도학 개론*의 제5부에서 교인에게 전도를 독려하기 위해 들려주어야 할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전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 전도하지 않을 때 불신자들이 맞이할 운명,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계획,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천국 소망 등이 그것이다.¹¹⁵⁾ 또 조지 스위트(*George Sweeting*)은 자신의 저서 *전도의 비결*의 세 번째 단원에서 ‘왜 증거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통해 성도가 전도해야 할 네 가지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 네 가지는 ‘성경 진리의 실체성 때문에,’ ‘성도는 구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우리의 위치 때문에’라는 내용으로 정리되는데, 이는 전도의 필요성을 잘 요약한 것이다.¹¹⁶⁾ 목회자가 전도를 실천하며 전도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교인 가운데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이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롬 10:17). 투

113) 나겸일, *전도 집중 교회로 만들라*, 76-77.

114) 류영모, *꿈대로 되는 교회*, 325-26.

115) 이명희, *전도학 개론*, 315-412.

116) George Sweeting, *전도의 비결 (How to Witness Successfully)*, 박제환 역 (재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37-45.

산영락교회는 5배가 전도축제 기간이 되면 주일예배시간을 통하여 전도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설교를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다.

<표 4>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도기간 중 설교 목록¹¹⁷⁾

설교일자	설교제목	설교본문
2009/09/20	비전 2009 5배가 전도축제	행 1:8
2009/09/27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눅 15:1-7
2009/10/04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II	눅 15:1-7
2009/10/11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왕하 7:1-9
2009/10/18	부름 받은 사람들	삿 5:13-18
2009/10/25	부름받은 사람들 2	삿 5:13-18
2009/11/01	우상과 알지 못하는 신	행 17:16-23
2009/11/08	이상향의 교회	행 17:16-23

117) 투산영락교회는 매년 5배가 전도축제 기간이 되면 교인들의 마음에 전도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교의 방향을 복음 전도에 맞추었다. 위의 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여준다.

2010/09/26	일어나 투산을 정복하라	민 13:30-33, 14:6-10
2010/10/03	일어나 투산을 정복하라2	민 13:30-33, 14:6-10
2010/10/10	하나님의 역사와 세 종류의 사람들	느 3:1-6, 4:1-3
2010/10/17	네가 미쳤구나	행 26:24-29
2010/10/24	놀라운 이름	마 1:21-23
2010/10/31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소문난 교회	살전 1:1-8
2010/11/07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투산영락교회	살전 1:1-8
2011/09/25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	요한계시록 3:1-9
2011/10/02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여호수아 6:8-16
2011/10/09	전도자에게 없으면 안 되는 5가지	디모데후서 4:1-5
2011/10/16	전도자에게 없으면 안 되는 5가지(2)	디모데후서 4:1-5
2011/10/23	용감한 전도자	사도행전 4:7-20
2011/10/30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로마서 10:9-15
2011/11/06	내가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라	요나서 4:5-11

나. 성공적인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전도자의 기도와 전도의 동력은 항상 비례하기 때문이다.¹¹⁸⁾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인류가 다 동원되어도 한 생명도 전도 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전도자의 본질적인 조건 중의 하나는 기도생활을 계발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¹¹⁹⁾ 전도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실한 전도를 할 수 있다. 전도자는 전도대상자에 대해 메모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또 전도대상

118) 민경설, *전도의 다이내믹* (서울: 선교 핫블, 2003), 179.

119) 이명희, *전도학 개론*, 47.

자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¹²⁰⁾ 조은태는 잃어버린 자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헌트(T. W. Hunt)와 월커(Catherine Walker)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훈련교제* 속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한 단계로 다섯 개의 과정을 설명한다. 첫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진정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둘째, 전도대상자를 주위에서 찾으라. 셋째, 전도대상자를 위해 알맞은 기도, 상세한 기도를 하라. 넷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다섯째, 하나님께서 매 단계마다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옮기게 하심을 감사드리라.¹²¹⁾

투산영락교회는 ‘5배가 전도축제’ 기간이 되면 전 교인이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 정시기도를 실시하였고, 두 차례의 전교인특별새벽기도, 오전과 저녁의 가능한 시간을 이용하여 연쇄중보기도를 실시하였다. 연쇄중보기도는 교인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교회로 와서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중보기도표’에 기록하고 또 자신이 기도한 여부를 ‘중보기도 실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교회의 예배시간이나 목장모임에서 언제든지 모임이 있을 때면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5배가 전도축제 기간 동안의 성실한 전도실천과 개인별 목장별 전도 목표의 달성 그리고 투산의 죽어가는 영혼들의 준비된 마음과 전도자들의 영적무장과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다.

다. 전도자 훈련의 필요

전도 중심적 목회의 초점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교인들이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다. 물론 전 교인이 전도에 동참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교인들이 전도하게 되는 것은 단지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훈련해야 한다. 전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모든 전도방법을 다 동원하여 전도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교회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투산영락교회가 시행하고 또 결실을 맺고 있는 전도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찾아 나가는 전도로

120) 임택진 외, *전도할 수 있습니까*, 85-87.

121) 조은태, *전도학 총론*, 204-205.

서 ‘5배가 전도축제’이고 다른 하나는 불러들이는 전도로서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이다.

투산영락교회는 교인들의 개인전도 훈련을 위해서 사영리, 전도폭발, 현장중심 관계 전도법 강의, 간증, 전도왕들의 전도사례 청취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주로 수요 기도회나 토요 새벽기도 시간에 이루어졌다. 투산영락교회는 ‘5배가 전도축제’의 실시 초기에 사영리나 전도폭발 전도법을 통해 전도자를 훈련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이민교회 지역 특성상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는 필자가 터득한 현장 중심의 관계 전도법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나 전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도 초보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전도기간 동안 매 주 10여 팀씩 짝을 지어 실제 전도를 실천하며 전도자를 훈련하고 있다.

라. 간증자 준비

(1) 간증의 중요성

투산영락교회는 알파코스를 비롯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마치면 참가자의 간증 순서를 갖는다. 간증의 시간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간증자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전도자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간증은 한 개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시편 107편 2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간증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간증은 사실을 말하는 것(요일 1:3)이기에 중요하고, 사탄을 이기게 하며(계 12:11),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요 4:39-42).¹²²⁾

(2) 간증의 가치

간증은 효과적인 증거의 도구이다.¹²³⁾ 간증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

122) Dave Dawson, *효과적인 간증 (Effective Testimony)*, 네비게이트 역 (개정 5판; 서울: 네비게이트, 2004), 10-12.

123) Ibid., 14-17.

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중대한 사건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간증은 에너지가 넘친다. 또 신앙의 간증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기에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독특하고 흥미진진하다. 만일 간증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해석하고 꾸밈없이 자신의 약점까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청취자들도 마음을 열고 경청하게 된다. 그래서 간증은 효과적인 전도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간증할 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 간증을 나누는 법

간증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민감한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¹²⁴⁾ 사람들은 저마다 자극을 받을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에 행복이 없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외로움, 불안과 불만족,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불만, 결혼의 실패, 나쁜 습관, 종교인에게 당한 피해, 두려움, 중독, 죄의식, 좌절감 등이다. 전도자는 전도할 때 전도대상자의 이러한 민감한 필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요 4:16)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행한 간증이 두 번 기록되어 있다. 간증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의 간증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22장 1-5절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22장 6-16절인데 바울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핍박자였던 자신을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세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22장 17-22절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셔서 ‘유대 민족주의’에 치우쳐 있던 자신을 변화시켰음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바울의 민감한 필요는 그의 선민사상이다.

124) Dawson, *효과적인 간증*, 20-26.

(4) 간증을 나눌 때 실제적인 고려사항

간증자는 자신의 과거를 전부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눌러야 한다.¹²⁵⁾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전의 삶을 설명하는 데 관련이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전도대상자의 민감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민감한 필요를 해결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자는 앞에서 바울의 경우를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간증을 세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증 중에 복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간증 중에 언급한 민감한 필요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무리 지어주어야 한다. 간증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이 잡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면 솔직하게 이야기 하되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나누어야 한다.

간증을 나눌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이야기에 머물러야지 설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부풀려서 말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이다.

5. '5배가 전도축제'의 실제

가. 전도 일정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행사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정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투산영락교회는 '5배가 전도축제'를 진행할 때마다 10주에서 12주 기간 동안에 진행할 일정표를 작성하였다. 전도부와 전도대원들은 진행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면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표를 따라 진행해 나가면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다. 다음에 제시하는 <표 5>은 2009년에 실시한 5배가 전도축제의 일정표이다.

125) Dawson, *효과적인 간증*, 37-41.

<표 5> 2009년도 5배가 전도축제 일정표¹²⁶⁾

월	일	행사명	비고
9월	준비 단계	6 정기 당회	“2009 5배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행사, 재정)
		13 제직회 및 사역팀 모임 전도대상자 선정 및 기록	각부 보고 및 “2009 5배가 전도축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전략모임
		18 김길복 권사 초청 전도 간증집회(18일~20일)	
		20 “2009 5배가 전도축제” 선포 정시기도 선포 (오전 10시, 오후 10시) 예배시 구호, 주제가 제창 전도대상자 명단 제출	비전 2009- 5배가 전도축제 전도- 할수 있다. 새가족-100명 주제가: “할수 있다 하신 이는”
		25 금요 전도팀 1차 전도	한인마켓 4곳, Costco(2곳)
		26 토요 전도팀 1차 전도	Tucson Mall, Park Mall, UofA
		27 선포 후 첫째 주일	
10월	실전 단계	2 금요 전도팀 2차 전도	한인마켓 4곳, Costco(2곳)
		3 토요 전도팀 2차 전도	Tucson Mall, Park Mall, UofA
		4 선포 후 둘째 주일	
		9 금요 전도팀 3차 전도	한인마켓 4곳, Costco(2곳)
		10 토요 전도팀 3차 전도	Tucson Mall, Park Mall, UofA
		11 선포 후 셋째 주일	
		16 금요 전도팀 4차 전도	한인마켓 4곳, Costco(2곳)
		17 토요 전도팀 4차 전도	Tucson Mall, Park Mall, UofA
		18 선포 후 넷째 주일	
		23 금요 전도팀 5차 전도	한인마켓 4곳, Costco(2곳)
		24 토요 전도팀 5차 전도	Tucson Mall, Park Mall, UofA
		25 선포 후 다섯째주일 (전도축제 중간점검및목자모임)	지난 1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 달성 계획수립
		30 금요 전도팀 6차 전도	한인마켓 4곳, Costco(2곳)
		31 토요 전도팀 6차전도	Tucson Mall, Park Mall, UofA

126) 투산영락교회는 5배가 전도축제를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진행하였다. 위의 표는 투산영락교회가 2009년도에 실시했던 5배가 전도축제의 일정표이다. 5배가 전도축제 기간에는 전도중심적 목회의 기반다지기 프로그램은 전도의 동력을 위하여 병행하였기 때문에 일정표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가이드의 역할을 하였다.

11월	실 전 단 계 / 결 실 단 계	1	선포 후 여섯째 주일	
		6	금요 전도팀 7차 전도	한인마켓 4곳, Costco(2곳)
		7	토요 전도팀 7차 전도	Tucson Mall, Park Mall, UofA
		8	선포 후 일곱째 주일	
		13	금요 전도팀 8차 전도	한인마켓 4곳, Costco(2곳)
		14	토요 전도팀 8차 전도	Tucson Mall, Park Mall, UofA
		15	선포 후 여덟째 주일(성례주일)	
		20	금요 전도팀 9차 전도	한인마켓 4곳, Costco(2곳)
		21	토요 전도팀 9차 전도	Tucson Mall, Park Mall, UofA
		22	선포 후 아홉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27	금요 전도팀 10차 전도	한인마켓 4곳, Costco(2곳)
		28	토요 전도팀 10차 전도	Tucson Mall, Park Mall, UofA
		29	결실의 날(전도목표 100명) 새가족 축하의 날	그동안 전도되어 나왔던 모든 분들과 다함께 나오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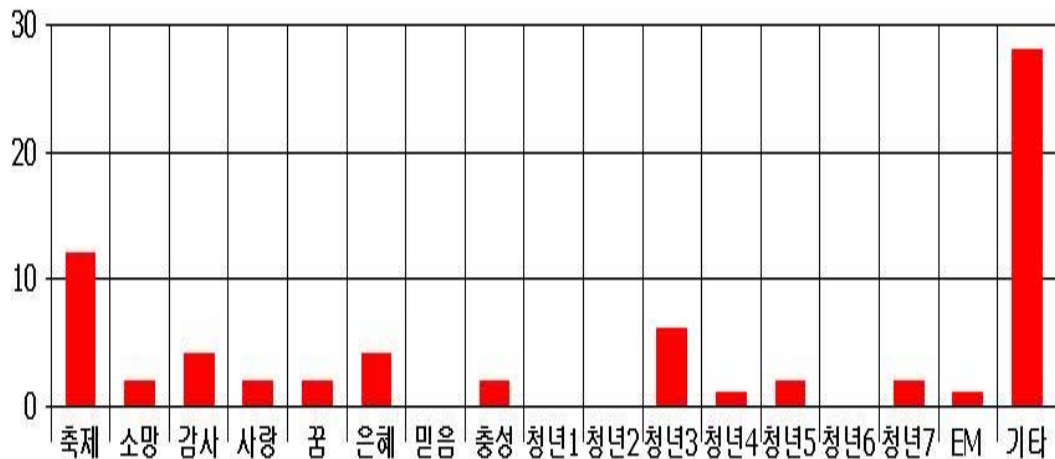
나. 전도 분위기 조성

투산영락교회가 전교인의 전도 참여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전도 분위기 조성이었다. 먼저 목회자의 독려가 중요하다. 필자는 ‘5배가 전도축제’를 선포하는 날부터 주일 설교시간 뿐 아니라 각종 모임 및 예배 시간에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의 분위기를 독려하였다. 전도의 움직임이 보이는 사람이나 목장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목회자가 그들을 공적인 석상에서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교회전체의 전도분위기를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화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서 5배가 전도와 관련된 구호(‘비전 2009 5배가 전도축제’, ‘전도 할 수 있다’, ‘새가족 100명’)를 제창하고 주제가를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다음으로 전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산영락교회는 전도활동의 진행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출입구 쪽에 전도 상황판을 붙이고 전도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또한 ‘5배가 전도축제’와 관련된 각종

광고와 함께 전도 현황표를 교회 주보에도 게재하여 전도 분위기를 상승시켰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5배가 전도축제’의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 배너를 달았다. 전도현황표의 그래프 눈금이 서서히 올라감에 따라 전도활동에 동참하는 교인들의 비율은 점점 올라가게 된다. 또 실내외에 전도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교인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오는 그림과 글귀들을 보면서 전도분위기를 느끼며 도전을 받게 된다.

<그림 2> 목장별 전도현황표¹²⁷⁾



127) 위의 그림은 투산영락교회가 5배가 전도축제의 전도 열매 상황을 교회 주보에 실었던 것이다. 목장별 전도현황표는 교회 주보에 뿐만 아니라 교회당 출입구 쪽에 상황판으로 붙여서 전도자들의 마음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표 6> 개인별 전도 현황표¹²⁸⁾

번호	새가족	인도자	번호	새가족	인도자	번호	새가족	인도자
1	Damien	이항성	26	김새미	조의성	51	스펜서	송순헌
2	Jenifer	이희정	27	Mary	이항성	52	크리스틴	송순헌
3	kim	송옥선	28	김요셉	김석후	53	박재익	박선자
4	김태영	이재호	29	김복선	장연주	54	강명호	조용호
5	김광민	자진	30	장동민	윤현순	55	강명숙	조용호
6	이운덕	자진	31	마르코	안현경	56	김은희	지영철
7	제니스	자진	32	안현경父	정인철	57	Kevin	지영철
8	장순애	황의열	33	안현경母	김영은	58	Justin	유진옥
9	이혁	지현준	34	헬레나	박선자	59	Nathan	유진옥
10	김코코	이수진	35	이은미	박선자	60	박소현	이성경
11	정찬	이수진	36	Bak	이항성	61	케이티	이성경
12	정조영	최민석	37	성대환	박선자	62	정리	정소영
13	임근수	박선자	38	그레이스	박선자	63	정현주	김지혜
14	이애자	박선자	39	성요한	박선자	64	정경호	김지혜
15	임병헌	박선자	40	성요셉	박선자	65	이경원	한상용
16	임혜민	박선자	41	성은혜	박선자	66	박민석	한상용
17	Robert	김한용	42	성윤희	박선자	67	장경용	한상용
18	Amy	김한용	43	Crabb	박선자	68	캐티	김복선
19	Christine	킴벌리 하	44	Sandra	박선자	69		
20	Maria	이항성	45	Robert	박선자	70		
21	Staffanie	이항성	46	박경숙	박선자	71		
22	David	이항성	47	박마영	박선자	72		
23	Alexander	이항성	48	이현옥	조용호	73		
24	Bethany	이항성	49	Paul	Joshua	74		
25	최아인	우지영	50	Jordon	정소영	75		

128) 위의 표는 부산영락교회가 2010년 5배가 전도축제 기간에 실제로 맺었던 개인별 전도의 열매들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5배가 전도축제 현황판¹²⁹⁾<표 7> 5배가 전도축제의 구호와 주제가¹³⁰⁾

2009 5배가 전도축제 <구 호>			
■ 비전 2009 (선창)		5배가 전도축제 (후창)	
■ 전도 (선창)		할 수 있다 (후창)	
■ 새가족 (선창)		100명 (후창)	

<주제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말라 하시고 물결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129) 위의 그림은 투산영락교회가 5배가 전도축제 기간 동안에 전도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회출입구에 부착한 전도축제 현황판이다.

130) 위의 표는 투산영락교회가 2009년도에 5배가 전도축제 기간에 사용했던 전도축제의 구호와 주제가이다.

다. '5배가 전도축제' 선포

투산영락교회의 '5배가 전도축제'는 D-day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선포일을 시작으로 하여 10-12주간 동안 전도에 돌입하였다. 담임목회자가 시작 첫날에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오늘부터 11월 마지막 켜 주까지 10주간에 걸쳐 '5배가 전도축제'가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10주동안 최선을 다해 전도의 대장정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일부터 분명한 전도설교를 시작하고 새벽기도시간에서부터 각종 예배의 시간에는 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는 5배가 전도축제가 선포되면서부터 모든 관심이 전도에 집중하게 된다.

라. 전도대상자 명단 작성 및 제출

'5배가 전도축제'가 선포되고 나서 최우선으로 시작하는 일은 전도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담임목회자는 예배의 광고시간을 통하여 신입 교인들을 위하여 '5배가 전도축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전도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미리 제작하여 교회순서지에 삽입한 전도대상자 명단카드가 교인들에게 배부되고 나면 목회자는 그 주간 동안 전도팀 사역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교인들에게 명단 작성을 독려한다. 신입 교인들의 경우에는 선포일 후 두세 주간이 지날 때까지 명단 작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교인들의 전도대상자 명단이 발표되거나 교회의 잘 보이는 벽에 게시되고 나면 조금씩 동참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전도의 결과로 새 가족들이 주일 예배시간에 소개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전도의 분위기로 달아오르게 된다. 본격적인 전도의 시작은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마. 정기적인 전도실천

한국교회는 대체로 여성들이 가정주부일 경우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이민사회에서는 여성이 집안 일만 하는 경우가 보기 드물다. 부부가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관계로 평일에 전도를 위한 모임을 갖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투산영락교회에서는 금, 토, 주일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4시간 정도 정기적인 전도 실천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바. 개인별 전도의 실제적인 예

투산영락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개인별 전도에서 실제 전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시간 선정: 전도자는 주중에 전도 나갈 날짜와 시간을 먼저 정한다.
- ② 타겟지역 선정: 전도자는 전도하기 위한 타겟 지역을 선정한다. (Costco나 대학교, 전도 대상자 명단에 있는 전도 대상자의 집이나 사업장 등)
- ③ 파트너 선정: 함께 전도하러 나갈 파트너를 정한다.
- ④ 기도: 그날의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 기도한다. (타겟지역과 전도 대상자의 준비된 마음과 자신의 영적무장을 위해 기도한다.)
- ⑤ 전도지 준비: 전도 시 사용할 전도지를 준비한다. 이때 사용하는 전도지는 주보, 사막 에 흐르는 생수의 강(투산영락교회 신앙잡지), 교회 안내 광고지 등을 준비한다.
- ⑥ 전도를 위한 선물 준비: 전도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선물로 떡이나 김밥, 과일 등을 준비한다.
- ⑦ 전도대상자를 기다림: 전도장소의 출입구에서 안쪽으로 30-40미터 지점에 카트에 상품을 한두 개 담아놓고 입구 쪽을 바라보며 전도 대상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 ⑧ 한국인 유무를 확인: 전도 대상자가 들어와서 상품을 찾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돌아가서 “Are You Korean?”(한국분이세요?)라고 질문을 던진다. (투산에는 한국인이 많지 않아서 물어보면 대체로 반가워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가 있다.
- ⑨ 인사: 상대방이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상이 참으로 좋으십니다. 또는 참 예쁘시네요. 어찌 그리 젊어 보이십니까?” 라는 칭찬으로 시작해야 마음이 열린다.
- ⑩ 접촉점과 동질감 찾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과의 동질감을 찾는 데 효과가 있다. “어디에 사시나요?, 투산에 오래 사셨는가 봐요?, 자녀들은요?, 자녀 학교가 어디지요?” 이때 어떤 부분에서든지 동질감을 통한 접촉점을 찾

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⑪ 신앙유무 판단: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어느 교회에 다니시죠?”라고 질문을 한 후 교회를 안다닌다고 하면 왜 안 다니는지,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은 없는지, 주변 가까운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⑫ 교회자랑: 먼저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을 자랑한다.¹³¹⁾ “꼭 한번 나와 보세요, 멋지고 아름다운 꿈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교회예요” 등의 말로 분위기가 잘 무르익으면 복음까지 전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케 한다.

⑬ 이름과 전화번호 기록: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는요?” 이때 꼭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기록해 두어야 다음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⑭ 집으로 초대: “저희 집에 놀러 한번 오세요. 저희 집에서 차나 한잔 하시지요. 아이들이 비슷한 또래네요. 애들 데리고 한번 놀러 오세요. 아이들끼리 친구가 되면 좋겠네요”라고 하며 만날 약속을 잡는다.

⑮ 간증(본격적인 전도): 식사와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찾고 마침내 본인의 신앙 간증을 하고 복음을 증거 한다.

⑯ 결신: 복음을 다 전했으면 결신 기도를 함께 드린다.

⑰ 관계 지속: 2차, 3차 초대 및 전도 대상자의 집을 방문한다. 계속되는 관계 전도를 통해 열매를 맺는다.

사. 선포 후 첫 주의 중요성

‘5배가 전도축제’가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 첫 주는 매우 중요하다. 선포 후 첫 주에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어지는 전도기간 동안의 사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와 전도자들은 첫 주에 많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도 준비 기간 동안에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5배가 전도축제 선포 후 첫 주일에 꼭 한 명씩 전도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 첫 주에 한 명 이상 전도한 사람은 전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131) 진송희, *바울 능력전도* (안산: 이미지, 2005), 42.

게도 큰 용기를 줄 수 있다.

아. 전도 상황 중간 점검

전도는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자발적인 것에만 의존할 수 없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초대교회의 특징인 복음 전도를 위한 열정에 세 가지의 주요 동기가 있다고 했다. ‘감사의 태도’와 ‘책임감’과 ‘관심’이 그것이다. ‘감사의 태도’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생겨난 자발적인 전도의 동기이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인 동기 외에도 두 번째 요소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고백을 따라 살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그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면서-“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고전 9:16-17)-위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책임감’은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에 있어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¹³²⁾

윌 메츠거(Will Metzger)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은 상황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며, 때로는 경험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나쁜 경험을 하게 된 것도 의욕을 꺾는 원인이 된다.¹³³⁾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중간 점검의 시간을 통해 전도하다 낙심한 전도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야 하며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한다. 그리하면 전도 열매가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전도 간증집회

투산영락교회는 전도자의 마음에 전도를 위한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방법으로

132)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박영호 역 (개정 3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432-55.

133) Will Metzger, *양보 없는 전도 (Tell the Truth)*,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246.

전도 간증의 시간을 갖는다. 투산은 지역적 특성상 외부 강사를 부르기 어렵다. 그러나 전도 중심적 목회를 위해서라면 재정적으로 조금 힘겹더라도 강사를 섭외했다. 투산영락교회는 한국에 있는 염산교회 출신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왕이었던 최명자 전도사와 대구 범어 교회 출신으로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의 저자 김길복 권사를 초청해서 전도 간증집회를 하였다. 전도 간증집회는 전도자들의 마음에 동기 부여를 하고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 이민교회에는 평신도 전도 간증자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로스엔젤레스 등과 같은 대도시에 비해 투산에서는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매년 전도 간증 강사를 모시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전도 간증을 위해 내부 인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투산영락교회는 알파사역이나 바나바사역 등 교회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마칠 때면 수료자들을 세워 간증하도록 하였다. 간증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장점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을 사모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투산영락교회의 핵심사역인 '5배가 전도축제'에서는 전도자가 전도에서 결실을 얻었던 경험들을 나누는 간증을 통해 아직 전도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전도의 동기를 불러 일으켰다.

6. '5배가 전도축제'의 성과

가. 적절한 기간의 설정

투산영락교회는 매년 9월이 되면 5배가 전도 축제를 시작해서 10-12주 동안 전도를 실행하고 있다. 전도 기간이 너무 짧으면 전도를 실행할 시간도 짧아서 열매도 적다. 반대로 너무 길면 교인들이 전도에 부담을 느끼고 매우 힘들어 한다. 투산영락교회에서는 지난 8년 동안 전도를 해온 결과 10주간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9월에서부터 11월 말까지의 기간의 선정은 추수와 관련이 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추수감사절기에 수확을 거둔다는 의미에서 매년 가을로 기간을 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투산영락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매년 이 때가 되면 '5배가 전도축제'를 시작하는 줄 알고 있다. <표 8>은 투산영락교회가 매년 실시하는 5배가 전도축제의 일정을 보여준다. 전도행사의 일정을 잡으면서 주의할 사항은 전도는 일회성으로 되지 않는 사실

이다. 기간을 정하고 매년마다 꾸준히 실천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된다. 나겸일은 주안장로교회의 교인들이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를 총동원 전도를 매년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¹³⁴⁾

나. 참여인원의 증가

전도에 참여하는 인원은 중요했다. 전도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 또한 커졌다. 투산영락교회에서 전도에 참여하는 전도자 수는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인 4명 정도가 참여하다가 점차 10명, 20명, 40명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투산영락교회는 계속된 동기 부여를 통해 전도에 참여하는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최종적인 목표는 전교인을 전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다. 결신자를 통해 본 분석

투산영락교회는 2004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5배가 전도축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간 많은 전도의 결실이 있었다. 전도축제의 기간, 등록자수, 정착된 수, 전도 참여인원, 전체 교인 수는 아래 표와 같다.

134) 나겸일, *전도마을 만들기*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47.

<표 8> 5배가 전도 축제를 통한 교인 등록 분석표¹³⁵⁾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도일정	9.26-12.19	10.2-12.4	9.24-12.3	10.7-12.2	9.21-11.30	9.20-11.29	9.26-11.28	9.18-11.20
전도기간	12주	9주	10주	8주	10주	10주	9주	10주
등록자수	58명	45명	31명		40명	83명	83명	70명
정착 수	30명	30명	20명	-35명*	30명	50명	45명	30명
실제전도 참여인원	4명	10명	10명	4명	20명	30명	30명	40명
전체 교인수	40명	70명	90명	65명	100명	160명	210명	255명

‘5배가 전도축제’의 첫 번째 성과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이다. 필자가 2004년 2월 부임당시에 장년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8명이었던 교인의 수가 8년이 지난 2011년 12월에는 위의 표와 같이 255명으로 성장되었다. 투산 지역 한인 교민 전체 수는 2,000여 명 밖에 안 되며, 지난 8년 동안 한인인구는 오히려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투산에는 한인교회가 8개로 한인 수에 비해 교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산영락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전도 중심적 목회 실천의 결과임에 분명하다. 참고로 투산영락교회는 전도의 결실로 많은 새로운 교인들이 정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가 급속히 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유학기간이 끝나 타주로 이동하였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졸업생들이 많았고, 방문교수나 연수과정으로 왔다가 다녀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투산영락교회는 한 달을 머물다 떠나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다.

135) 위의 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5배가 전도축제 동안의 전도 기간과 등록자 수 그리고 정착 수에 대한 분석표이다. *표 기간에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로 35명의 교인이 이웃교회로 떠났다.

둘째, 새 가족들의 유입으로 교회 분위기가 활기차고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셋째, 전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정적이었던 인식이 자신감과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넷째, 전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회 일꾼들이 개발 되었으며 열매 맺는 전도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다섯째, 교회 성장으로 인해 재정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실내체육관을 갖춘 성전을 소유할 수 있었다. 여섯째, 투산영락교회의 성장은 주변 교회들과 노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롤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곱째, 8여 년간의 ‘5배가 전도축제’의 실행을 통해 교회에 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제 교회적 전도실천이 더욱 쉬워지게 되었다.

제 2 절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

1.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의 의미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란 직장이나 유학, 기타 연수 과정으로 인해 투산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전도의 형태를 말한다. 투산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마켓 앞 포스터, 잡지 등을 통해 교회 정보를 얻고 교회로 도움을 요청해 오면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관계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투산영락교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꾸준히 이 방법을 통해 전도해오고 있고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도의 성과가 실로 크다. 이 전도방법은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면서 관계를 맺고 또한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가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전도 한다는 점에서 전도를 통한 정착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2. ‘도움 요청자’와의 접촉점 마련을 위한 수단

투산영락교회가 투산 정착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지역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등의 방법을 포함하며 그 외에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출국자 모임과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다.

가.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는 정보화시대에서 아주 유용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투산영락교회는 사역초기부터 이점에 유의하였다. 그 결과 홈페이지를 통한 전도의 성과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다. 교회 홈페이지는 타주에서 이사를 오거나 유학이나 방문교수로 투산에 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감당한다. 투산 방문 예정자들은 투산의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포털사이트를 이용한다. 교회는 정보를 만들어 검색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교회의 게시판에 올린 교회 안내의 글들이 검색과정에서 검출되어질 수 있다. 투산영락교회에서는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유학이나 이민 등의 이유로 투산을 찾는 이들에게 ‘도와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십 여 가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투산 방문자들로부터 투산 도착 시간을 접수하면 전도자가 공항 픽업에서 시작해서 홈스테이, 아파트 구해주기, 은행 계좌 열기, 휴대폰 개통, 시장보기, 자동차 사기, 심지어 운전면허 취득까지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도움의 글은 투산을 방문하려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해 주고 있다.

미국의 이민교회의 경우에는 검색자가 검색과정에서 한인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교회의 정보들을 검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접촉점이다. 이에 반해 교회의 자체 홈페이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창구로 사용될 수 있다.

교회는 검색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회가 속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한인학생회 홈페이지나 한인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검색자들은 학교 입학에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학교 입학 시 도움을 얻기 위해 한인학생회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인학생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교회사역을 안내하는 글을 올리면 도움요청의 메일을 받을 수도 있고 게시판에 직접 올린 글을 통해 도움요청을 확인할 수도 있다.

투산의 경우 지역 대학의 한인학생회가 학교의 정보나 학생회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다음 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이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 이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다. 검색자가 카페 게시판에 올린 교회정보를 보고 연락을 해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교회정보와 상

관없이 도움 요청의 글을 게시한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사역담당자가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답글을 적극적으로 달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답글을 쓸 때에는 지속적인 연결을 위해 반드시 전도자의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역신문이나 방송

지역신문이나 방송이 교회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교회가 홍보를 위해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전도를 위한 접촉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광고게재는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미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면 교회가 기사거리를 잘 준비하여 사진과 함께 한인신문사로 보내는 것이다. 물론 신문사에서는 기사를 채택하여 게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은 교회 홍보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된다.

새로운 지역에 온 사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다른 정보매체를 통하지 않고 그 지역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한인마켓을 자주 찾아간다. 한인마켓에서 지역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도구는 역시 한인신문이나 교회에서 발간한 주보 또는 잡지이다. 따라서 신문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인 전도를 위해 필수적인 방법이다.

투산영락교회는 매주 화요일이면 교회의 기사거리를 정리하여 사진과 더불어 한인신문사로 발송한다. 투산에는 ‘코리아투데이’와 ‘아리조나 타임즈’라는 두 개의 한인신문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다. 투산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신문들에 게재된 투산영락교회의 기사를 접할 수 있고 교회로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신문에 올린 교회정보를 통해 새로운 투산 정착희망자가 도움요청이나 교회생활 안내를 받기 위해 교회로 연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다. 잡지

투산에는 한글로 된 인쇄물이 많지 않다. 그래서 교회의 잡지는 한인들에게 좋은 읽을거리가 될 수 있다. 투산영락교회는 ‘사막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잡지를 발행했다. 잡지 내용은 이민자들이 많이 공감할 내용들 즉 과학상식, 자녀교육, 웰빙, 리더십, 성공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잡지의 가장 중요한 앞부분과 뒷부분을 통하여 교회소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의 비전, 예배시간 안내와 더불어 교회주소

와 약도를 게재하였고, 특히 교인들의 간증을 실어 잡지의 독자들에게 투산영락교회 교인들의 만족한 신앙생활을 소개하였다.

라. 포스터

지역에 있는 한인마켓들과 아시안 마켓들 그리고 한국인이 출입하는 식당 등에는 교회에서 제작한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포스터에는 간단한 교회소개와 더불어 예배시간 및 교회장소 안내를 담고 있다. 포스터는 출석할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투산에 투산영락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마. 직접적인 만남

유학생 전도의 예에서 전도자가 인터넷이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 도움을 제시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국자 모임’에서의 만남이고 다른 하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의 만남이다. 유학생들 중에는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 교회는 그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출국자 모임’을 개최하도록 격려한다. 출국자 모임은 투산에서 유학하려는 신입생들에게 학교정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모임이다. 출국자 모임을 유학예정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대학 홈페이지나 한인학생회의 ‘다음 카페’의 게시판에 이용하는 것이다. 유학 예정자들은 입학정보를 찾다가 학교게시판을 통해 출국자 모임에 대한 안내를 입수하게 된다.

출국자 모임에 대한 광고는 두 번에 걸쳐 실시된다. 처음에는 참석자의 인원과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되고, 두 번째는 참석 예상인원과 주소를 참조하여 모임 일자와 장소를 정하여 다시 게시한다. 지금까지의 ‘출국자 모임’은 주로 서울에서 열렸고 대체로 출국자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그 해 유학생들의 50%정도였다. 출국자 모임 개최자들의 임무는 신입생과 서로 얼굴을 익히는 것과 가능한 대로 그들의 연락처를 받아내는 것이다. 출국자 모임에서는 학교정보를 제공하고 투산 정착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출국자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연결되거나 오리엔테이션에서 직접 만나게 된다.

출국자 모임에서의 만남과 함께 중요한 전도의 기회는 학교 오리엔테이션이다.

전도자들은 신입생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장소에 입장하여 그들의 옆에서 도와준다. 미리 출국자 모임에서 얼굴을 익힌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만남을 아주 반가워한다. 출국자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전도자들이 다른 신입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각 나라별로 일어서서 인사하는 순서가 있다. 이 시간은 전도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 전도자들은 한국인들이 소개될 때 일어서는 사람들의 위치를 잘 파악하여 그들의 곁으로 가서 앉아 그들의 필요에 따른 도움을 준다. 오리엔테이션의 기간은 주로 3-4일이 걸린다.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첫 날이다. 왜냐하면 신입생들이 가장 당황하게 되는 날이라 도움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대체로 학교에서 점심식사가 제공되지만 전도자들은 미리 식당을 예약해 두고 점심시간에 신입생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 왜냐하면 이 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임에서 전도자들의 중요한 임무는 신입생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임시 연락처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일은 계속적인 만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전도자들은 신입생들에게 휴대폰 개통 및 아파트나 기숙사 입주를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3. 정착을 위한 도움의 내용과 전도를 위한 연결점

가. 공항 픽업

투산 정착예정자들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로 공항에서 주어진다. 미국 생활이 낯선 그들에게 공항 픽업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당황스럽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행로는 전도하기 좋은 시간이다. 정착예정자들은 자신을 도와주러 나온 전도자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된다. 미국의 이민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다. 전도자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빠른 시간에 정착예정자의 신앙경력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좀 더 발전된 대화로 진행할 수 있다. 공항픽업은 계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도자는 그들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투산영락교회에서는 투산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에게 공항 픽업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 홈스테이

홈스테이를 제공함으로써 전도자는 정착예정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친밀한 관계형성은 정착예정자에게 복음을 제시하거나 그를 신앙생활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도자는 정착예정자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여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 투산영락교회에는 홈스테이 기간 동안 받은 섬김의 영향으로 계속 교회에 머무르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그들이지만 낯선 미국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기에 그들은 정성껏 섬기는 전도자에게 감동을 받는 것이다.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동안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복음과 간증의 시간을 갖는다. 섬김을 통해 받는 감동과 자연스러운 간증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다. 아파트 구해주기

미국생활이 처음인 사람이 낯선 곳에서 아파트를 계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투산 같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차가 없는 정착예정자를 더욱 막막하게 한다. 그래서 전도자가 정착예정자에게 적절한 아파트를 소개해 주고 계약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은 중요하다. 전도자는 정착예정자의 아파트 계약을 도우면서 그의 주소를 획득할 수 있다. 또 정착예정자를 위해 아파트를 선정할 때 전도자는 그의 교회생활을 고려하며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도자는 정착예정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학군과 스쿨버스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안전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아파트 근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점이 있는지, 직장까지의 출퇴근을 위한 거리는 적당한지 등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교회에 다니기 용이한 거리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착예정자가 학생이며 차가 없는 경우에는 교회 출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에 적절한 곳인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라. 휴대폰 개통

휴대폰 개통은 전도 초기에 도와줄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정착예정자와의 계속적인 연락을 위해서는 연락처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정착예정자의 휴대폰개통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첫 날의 일과가 마치면 곧 바로 휴대폰개통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초기에 연락이 끊어지면 전도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학생이나 일반인이나 초기 정착 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그 이유는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서서히 전도자와 교회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대략 삼 개월 안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영접시켜야 한다. 전도의 열매를 위해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빠른 기간 안에 교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 기타

그 외에도 전도자가 정착예정자를 위해 도와줄 내용은 많다. 은행계좌 열기, 운전면허 취득, 차량 구입, 기본 살림도구마련, 차량구입 전 쇼핑 등이다. 전도자는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정착예정자와 함께 있을 시간을 확보하고 계속 신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전도자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잘 훈련되어 있어 어떤 주제에서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사회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좋다. 미숙한 전도자라 할지라도 관계전도에서는 신앙생활의 간증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신앙에 대하여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도자는 정착을 돕는 과정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도와 양육을 위한 좋은 기회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감동을 줄만큼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미안한 마음에라도 교회에 삼 개월 정도는 나오게 된다.

4. 투산 정착 돕기를 통한 전도의 성과

전도 중심목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인 ‘투산 정착 돕기를 통한 전도’는 많은 성과를 교회에 선물하였다. ‘5배가 전도축제’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첫발

걸음이 되어 이후의 계속적인 관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면, ‘정착 돕기를 통한 전도’는 전도대상자들의 높은 정착율을 얻게 하는 중요한 전도 방법이다. ‘5배가 전도 축제’를 통하여 등록한 사람들의 높은 비율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었다면, ‘정착 돕기를 통한 전도’를 통하여 등록한 교인들은 불신자였던 사람들과 투산에 처음 와서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다.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교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들은 대부분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투산영락교회가 교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접촉한 정착 예정자들을 도와줌으로 얻게 된 전도의 열매를 보여주는데 등록자의 정착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9> ‘투산 정착 돕기를 통한 전도’의 성과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등록자 수	17	14	19	21	12	24	32
정착된 수	15	11	16	15	8	21	29
정착율	88%	79%	84%	71%	67%	87.5%	91%

제 3 절 문화 사역을 통한 전도

1. 문화사역의 필요

전도는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마 28:19). 그러나 투산의 현실적 상황에서 찾아가는 전도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이민 사회에서는 지역이 광범위하여 한인들이 어디에서 사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는 한인들 간의 교제를 위해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교회 공동체를 제외하고 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한국 마켓이나 한국 음식점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유학을 온 가정들끼리라면 학교에서 만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취미활동, 예를 들어 테니스나 골프, 축구클럽

등이 만남의 통로가 된다. 그 외에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성인 영어교실(adult school)과 같은 곳도 있다. 전도자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모임에서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전도는 찾아가서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불러들이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인 현대인들의 삶의 코드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전도의 접착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에는 복음 전달의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¹³⁶⁾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Rick Warren)도 전도 대상자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문화를 통한 전도가 효과적임을 말하고 있다. 그는 “각각의 인종 집단은 그들 고유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전략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¹³⁷⁾ 그런 점에서 새들백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를 통해 교회와 지역 사이에 다리를 놓아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는데, ‘다리 이벤트’(Bridge Event)라는 전도 행사가 그것이다.¹³⁸⁾ 김학중은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만 된다면 교회 성장은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을 거라고 말한다.¹³⁹⁾

하용조는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도 전략, 즉 ‘맞춤전도’를 통해 온누리교회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열매를 거두었다고 한다. 그는 이 ‘맞춤전도’를 대상자의 필요와 복음의 접착점을 정확하게 발견하여 복음을 생활 언어로 전달하는 전도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한다.¹⁴⁰⁾ 명성훈도 지역사회에서는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가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센터가 될 때 교회의 존재를 인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¹⁴¹⁾

따라서 교회는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골프 농구 축구 등의 스포츠교실, 성악 바이올린 코드반주 등의 음악교실, 영어 스페인어 등의 언어교실, 어린이미술 어린이태권도 등의 어린이 교실, 장고 고전 무용 난타 등의 전통교실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만들어 그들을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교회에 한 번 발을 디디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관계전도를 지속

136) 박상천, “교회부흥을 위한 문화 전략에 대한 연구: 김해중앙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2.

137)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81.

138) 박건, *현장에서 본 새들백교회*, 170-71.

139) 김학중,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라* (개정 13판; 서울: 나침반, 2000), 181.

140)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280-81.

141) 명성훈, *뒷문을 막아라* (개정 4판; 서울: 크레도, 1996), 68-69.

적으로 해 나갈 때 결국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문화사역을 위한 준비

투산영락교회는 문화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문화사역 준비위원들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준비위원들은 문화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웃도시의 교회와 여러 전문서적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준비 일정을 세웠다.

일정에 따라 준비 위원회는 투산영락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수강하기 원하는 관심 분야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준비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과목에 대한 소개와 그 외의 추천 과목들에 대한 질의로 구성되었다.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70여 명의 응답자가 있었고 문화사역 준비위원들은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개설 과목들을 편성하였고 강사 확보와 수강생 모집을 위한 방법으로 두 개의 지역신문에 각각 두 차례씩 한 달간 광고를 게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4곳의 한국 마켓과 2곳의 한국음식점 등에 포스터를 붙이고 신청서를 비치해 놓음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였고 강사들은 1차적으로 본교회 성도나 타교회 성도 가운데서 그 외에는 개설 과목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분 중에서 모집하였다.

장소는 불러들이는 전도로서 문화사역을 통한 전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실내 체육관과 수십 개의 과목을 동시에 강의할 수 있는 강의실을 2011년 5월에 마련하게 되었다.

3. 문화사역의 시작

투산영락교회는 강사와 학생모집, 강의할 장소가 구비되자 2011년 10월에 ‘투산한미 문화 교육 센터’를 개원하여 문화 사역을 시작하였다. 강의 과목은 준비위원회가 설문 조사를 했던 때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 되었는데 컴퓨터, 어린이 미술, 어린이 난타, 성인 난타, 장구교실, 고전무용, 바이올린, 농구, 탁구, 켈트 등 10개 과목이었고 참여한 학생은 모두 33명이었다. 골프교실에 대한 요청도 있었으나 강사 미확보로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강의 스케줄은 처음 시작이라 짧게 6주간으로 하였는데 과목 특성

상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12주 동안 열기도 하였다. 강의가 열리는 요일은 이민사회 특성을 고려해서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진행하였다. 잘 준비된 강의를 위해서 강사들에겐 강의 계획서를 강의 시작 2주전까지 요구해서 받았으며 강사들과 학생들과의 피드백과 교제를 통해 만족한 문화교실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투산영락교회는 봄, 가을로 1년에 2차례씩 계속해서 문화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4. 문화사역의 성과 및 보완점

투산영락교회의 전도 중심적 목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인 ‘문화 사역을 통한 전도’는 지금 시작 단계이기에 그 성과에 대해서 논하기는 이르다. 어떤 사역이든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문화사역을 통한 전도도 마찬가지다.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너무 전도적 입장으로 다가가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한국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에서 과연 문화센터를 열어 문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역에서 10개 과목 33명이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시작치고는 꽤나 괜찮은 편이다. 우선은 훌륭한 강사와 내실 있는 강의 내용, 잘 준비된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계속 지역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렴해서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고 보다 전문적인 강사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교회는 예산을 확보해서 수준 높은 강사와 환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문화센터에 대한 이미지는 더 좋아질 것이고 많은 학생들이 문화 센터를 찾게 될 것이다. 문화센터가 2회, 3회 거듭되면서 좋은 이미지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스텝들과 교회 전도팀 학생들을 참여시켜 관계 전도를 시도할 것이며, 그때부터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제 7 장

결 론

제 1 절 전도 중심적 목회의 요약과 미비점

1. 전도 중심적 목회의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그로인해 침체되고 생명력을 잃어 가는데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데서 출발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성경에 바탕을 둔 이론이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어느 교회에서나 적용 했을 때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의 해답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전도중심목회’라는 길을 통해 답을 찾아냈다. 필자가 투산영락교회에 부임할 당시 창립 된지 3년 6개월 된 교회로 그 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2가정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부임 첫 해부터 영혼구원의 ‘전도중심목회’로 목회 방향을 정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시행해 왔다. 그 결과로 전도 중심적 목회의 핵심사역인 ‘찾아가는 전도’로서의 ‘5배가 전도축제’와 ‘불러들이는 전도’로서의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는 투산영락교회가 오늘의 교회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주장하는 전도 중심적 목회는 전도가 핵심사역이라는 것이 지 교회의 다른 목적들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회가 소규모일 때에는 힘을 분산하지 말고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목회자는 목회의 핵심사역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분명한 목회철학과 실천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하여야 한다.

전도 중심적 목회를 위해서는 전 교인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 교인이 전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부터 전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 목회자들은 교회로 들어온 교인을 관리하는 데에만 그 사역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목회자부터 영적동정심과 섬김의 삶을 통해 전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전도하고 섬기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은 교인들로부터 영적 권위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목회자가 전도 중심적 목회철학과 열정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교인들도 서서히 전도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필자가 전 교인들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목회자부터 전도를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전도 중심적 목회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다. 먼저 필자는 알파사역을 통해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교육의 목표를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과 함께 성령충만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전도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도록 준비시키고자 했다. 또한 전 교회가 새 가족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 교육을 실시하여 바나바 사역자를 양성하고자 힘썼다. 그리고 누구나 투산영락교회의 등록교인이 되면 양육시스템을 통한 교육으로 사명자가 되도록 목표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전도 중심적 목회의 기반을 다지는 사역이었다.

필자는 두 가정만 남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부흥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목숨을 건 열정으로 전도에 힘쓰는 것과 전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겼다. ‘5배가 전도축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해 오던 ‘총동원전도’나 ‘대각성 전도 집회’와 다르다. ‘총동원전도’와 ‘대각성 전도집회’는 D-day에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5배가 전도축제’는 전도 기간 동안 언제든지 전도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한다. 뿐만 아니라 전도 기간 중에 교회로 초청하지 못하더라도 초면의 전도대상자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감으로 목장모임이나 교회의 알파코스 등과 같은 구도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산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는 ‘5배가 전도축제’와 더불어 투산영락교회의 중요한 전도 방법이다. 이 사역은 미국과 같은 이민교회에서 적용하기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이다. 전도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는 사역으로 교회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한다. 복음은 사랑과 섬김이 동반될 때 그 능력을 발휘한다. 정착 예정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전도자에게 제공한다. 도움

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는 언제나 함께 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대상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 섬김을 동반한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문화 사역을 통한 전도’는 이제 막 시작 단계지만 보다 많은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역은 전도 대상자들의 문화적 욕구에 따라 도움을 주면서 전도하는 사역으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전도사역이다.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이민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으며 1년에 2차례씩 그것도 한차례에 8주간의 관계를 맺으며 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도 성공율이 높을 수 있는 사역이다. 투산영락교회에서 시행하는 ‘문화사역을 통한 전도’는 시작 초기라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 이른 점이 있지만 미국의 월로우크릭 교회나 새들백 교회, 한국의 안산 레포츠 교회, 온누리 교회 등을 통해 볼 때 현대인들에게 매력이 있는 전도사역이며 계속적으로 시행했을 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역이다.

2. 전도 중심적 목회 실천의 미비점

투산영락교회는 지난 8여년의 기간 동안 전도 중심적 목회의 기반을 다지는 사역들과 투산영락교회의 핵심사역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의 성장을 맛보았다. 그러나 전도 중심적 목회를 실천하면서 미비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5배가 전도축제’의 기간 동안에 만난 초면의 전도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 초면의 전도대상자들을 교회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이 목장과 구도자를 위한 교회 프로그램인데, 목장의 소그룹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여 초면의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구도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5배가 전도축제’의 기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투산 정착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문화사역을 통한 전도였다. 아직 이 사역은 시작단계에 씨를 뿌리는 정도에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큰 열매를 맺으리라 생각된다.

제 2 절 연구 결과 및 제언

필자는 전도 중심적 목회에 대한 이 논문이 목회자들에게 일반적이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교회의 핵심사역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적극적으로 목회를 실천하는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프로그램이라면 서둘러 자신의 교회에 접목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교회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전도는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기피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의 경우에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성장에 대한 기대를 버렸고 전의(戰意)마저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두 가정으로 시작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투산영락교회는 많은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고, 필자가 실천한 전도 중심적 목회는 교회의 성장을 꿈꾸는 교회들에게 롤 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전도 중심적 목회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교회의 핵심사역인 전도는 누구든지 용기 있게 실천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결과로 교회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다만 전도 중심적 목회를 위한 기반다지기 프로그램들이 부담이 된다면 각 교회가 나름대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찾아가는 전도와 불러들이는 전도로서 각각 '5배가 전도축제'와 '정착 돕기 사역을 통한 전도,' '문화사역을 통한 전도'를 시행하는 것은 목회자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투산영락교회 부흥을 위하여 일할 바나바를 찾습니다.

투산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투산영락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명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찾는 많은 새 가족들이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적응하도록 먼저 부름 받은 성도 여러분의 헌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뜻있는 성도들의 결단 있는 참여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행 4:36-37, 11:22-26) 숨어 있는 교회의 보배였습니다.

바나바는

1.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먼저 찾아가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 9:26-27).
2.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을 먼저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연결시켜 주어 모든 성도들과 한 가족이 되도록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행 9:26-28).
3. 새 가족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며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행 11:22-26).

투산영락교회에서 바나바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 1) 목사님과 함께 7주 동안 사역자가 되기 위한 기초 교육을 받는 것과
- 2) 교회에서 짝지어 주는 새 가족을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며 안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7주간 동안입니다.

● 여러 층의 새 가족들이 교회로 오기 때문에 우리교회는 여러 층의 바나바들이 필요합니다.

● 바나바 사역 지원은 오는 ○○월○○일까지 아래의 지원서를 제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르는 선-----

바나바 사역 지원서

저는 투산영락교회에서 행하는 바나바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여 이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이름 서명

투산영락교회 담임목사 장충렬

부록 2

바 나 바 사 역 서 약 서

이름: _____

- 서 약 내 용 -

1. 7주간의 교육에 결석 없이 임하겠습니다. 바나바 교육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바나바 사역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2. 교육에서 맡겨지는 새 가족을 위하여 7주간 동안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헌신할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라도 바나바로서의 신앙과 인격을 잃지 않고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노력할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투산영락교회에서 행하는 바나바 사역의 교육과 헌신에 임하며 본 교회의 바나바가 되기 위하여 위의 사항들을 따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투산영락교회 담임목사 장충렬

부록 3

바나바 교육 설문지

바나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물음에 답해보십시오.

(다음의 질문은 별지에 인쇄하여 나누어 준 후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름 _____

1. 바나바 교육을 받기 전과 교육을 받은 후에 무슨 생각의 차이가 생겼습니까?

2.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3. 교육을 마친 바나바로서 앞으로 사역에 임하며 가지는 결심은 무엇입니까?

부록 6

투산영락교회 멤버십 언약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했고 또 세례를 받았으며, 아울러 투산영락교회의 선포들, 전략 및 구조에 동의하면서, 나는 지금 성령께서 나를 투산영락교회 가족과 연합 되도록 이끄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가운데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과 다른 멤버들에게 헌신하며 다음을 실행하기로 서약합니다."

1. 나는 나의 교회의 하나 됨을 지키겠습니다.
 - ◆ 다른 지체들에 대해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 ◆ 가십을 거부하고 마태복음 18:15-17을 사용해 갈등들을 해결함으로써
 - ◆ 리더들을 따름으로써

2. 나는 나의 교회의 책임을 나눠지겠습니다.
 - ◆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 ◆ 비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초대함으로써
 - ◆ 방문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함으로써

3. 나는 나의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여 섬기겠습니다.
 - ◆ 나의 은사들과 재능들을 발견함으로써
 - ◆ 나의 목회자들에 의해 섬기도록 준비됨으로써
 - ◆ 섬기는 자의 가슴을 개발함으로써

4. 나는 나의 교회의 간증을 지지하겠습니다.
 - ◆ 신실하게 참석함으로써
 - ◆ 경건한 삶을 가짐으로써
 - ◆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림으로써

2011년 7월 14일

서약자: _____

부록 7

투산영락교회 사역팀 및 부서 조직표

팀	부서	사역
예배 1 팀	1부성가대	1. 성가대 준비, 연습 2. 성가대원 확보 3. 예배시 특송 담당자 준비 4. 연합예배 및 특별 예배시 성가대 찬양준비 (부활절, 성탄절, 창립주일 등)
	2부성가대	
	찬양사역부	모든 예배 및 행사를 위한 음악과 찬양 담당(감동과 은혜의 예배 준비) 1. 예배전 찬양(1부, 2부, 수요, 새벽 등) 2. 찬송가 및 복음성가 보급 3. 각종 예배 및 알파, 사역팀수련회, 목자수련회 등 훈련 프로그램 지원 4. 매월 첫주 전교인 새벽 기도시 목장별 특송 준비 및 주관 5. 중창팀 육성과 지원- 교회학교, 장년(남성, 여성, 혼성, 청년 등) 6. 각종 악기팀 운영(오케스트라, 핸드벨 등)
	성례부	성례준비(세례식과 성찬식)
예배 2 팀	예배사역부	<p>각종 예배순서 점검, 예배위원 20분전 기도로 준비</p> <p>1. 예배담당자 출석확인-기도, 안내, 헌금위원(20분전 기도로 준비완료)</p> <p>2. 예배실 준비(음향, 온도, 유아실 TV, 헌금통 등)</p> <p>3. 주보관리 및 헌금 봉투 관리</p> <p>4. 절기예배(부활절, 창립주일, 감사절, 성탄절) 행사계획 및 준비(총무부와 협력)</p> <p>5. 특별 새벽기도회 준비</p> <p>6. 강사접대(봉사부와 협력)</p> <p>7. 강단미화 (절기와 연합예배)</p> <p>8. 각 예배실, 미화정리</p> <p>9. 현수막 준비(절기와 부흥회 등)</p> <p>10. 결혼, 장례 예배 준비</p>
	성전미화 사역부	
	미디어 사역부	<p>1. 예배사역 지원 (프로젝트 사용)</p> <p>2. 찬양사역 지원 (프로젝트 사용)</p> <p>3. 각종 교육사역 지원(TBC성서대학, 알파코스, 양육시스템 등 각종 교육시)</p> <p>4. 동영상 촬영 및 인터넷에 올리기</p>

팀	부서	사역
선교 1 팀	해외선교부	1. 해외선교지 선정 및 지원, 단기선교사 파송(어린이부터 장년까지) 2. 해외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선교사 초청 및 선교훈련 개최
	국내선교부	1. 국내선교지 선정 및 지원 2. 선교지 탐방활동 및 지원(원주민 선교현장 및 국제 OM선교본부) 3. 개척교회 지원 4. 병원선교, 학원선교, 각종 취미 활동을 통한 선교 - 테니스 선교회, 골프선교회, 조깅 선교회, 등반 선교회 등
	의료선교부	1. 투산 한인초청 의료 상담 및 검진(년2회 4,10월) 2. 교인의료상담(매월 둘째주) 3. 해외 의료선교
선교 2 팀	전도사역부	1. CD선교-copy, label 작업, 전도지, 주보(마켓앞 배치) 2. 지역전도, 각종 전도훈련, 전도관계행사 3. 전도지 발간(사막에 흐르는 생수의 강), 전도자시상 4. 전도팀 가동, 2010 새 생명 대축제 5. 투산지역 한인명단 확보(전화국을 통해 전도 대상자 선정) 6. 마켓앞 광고판 관리 7. 각종 전도훈련(사영리, 전도폭발, 5배가 전도학교, 사명훈련 등)
	체육사역부	1. 체육행사 주관 2. 체육동호회 개설, 협조 3. 체육활동을 통한 전도
	인터넷선교부	1. 미디어사역-신문, 방송광고, 인터넷 광고 2. 인터넷 사역- 홈페이지 운영 지원 등

팀	부서	사역
교 제 팀	새가족사역부	1. 새가족 등록, 관리, 새가족식 준비 2. 환영 및 선물관리-(꽃, 사막에 흐르는 생수의 강, 설교 CD, 캘린더, 기타선물) 3. 새가족 담임목사와 사진 촬영, 보관, 사진관에 게재 4. DVD 상영-교회소개 5. 새가족 훈련- 일대일, 바나바 사역, 알파, 비전클래스) 6. 매주 새신자에게 전화심방, 심방, 편지 보내기 꿈과 비전 설명)
	바나바사역부	1. 바나바 관리- 새신자에게 바나바 짝 맺어주기, 바나바활동 지원 2. 교육부와 함께 바나바 교육 실시 (년 1회 이상)
	목장사역부	1. 목자수련회 준비 2. 목자 및 예비목자 교육 3. 목장운영 지원, 목장 단합모임 4. 목장성경퀴즈대회, 목장 찬송가 경연대회 주관, 목장 윗놀이대회
	중보기도실	중보기도 사역팀 운영
	QT나눔방	1. QT나눔방 운영 2. 전교인의 QT 활성화 3. 교회,목회자,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
교 육 팀	영아부	1. 주일예배, 각종 활동 2.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3. 교사확보, 교사대학 운영 4. 단기선교 및 각종 선교지 탐방 5.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6. 교회학교 각 부서 지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1. 청년부 활성화(청년부 예배, 수련회, 캠퍼스 전도, 오리엔테이션 참가, 신입생 정착돕기, 청년부 홈페이지 운영) 2. 청년부 식사
	EM	1. 영락교회 양육시스템 클래스 (101~401) 운영 2. 알파코스/ 바나바 사역 훈련 3. 섬김 훈련 (영락동산) 4. 평신도 개발 교육-TBC성서대학, 40일성경탐구, 성경통독, 일대일 제자훈련 바나바 훈련 5. 지도자 훈련-교사 수련회, 사역팀 제직 부서 수련회 준비 및 지원, 직분자 교육 6. 교육 자료부 자료모음, 준비, 보관 7. 도서관 운영
	장년교육부	

팀	부서	사역
봉사사역 1팀	친교실운영부	1. 친교실 운영- 친교실 운영관리, 식사준비(식사담당 짜기) - 각종 교회 행사 시 식사준비 - 설거지 담당 짜기, 친교실 물품 구입
	대내봉사부	1. 구제 - 구제사업, 봉사사업(사랑의 911 가동) 2. 각종 봉사그룹 운영- 사람들에게 봉사할 장을 찾도록 도와줌(은사개발) 3. 각종봉사훈련실시, 각종 봉사훈련 참가(영락동산 등) 4. 교회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지원 (병원, 통역, 유학생들 지원 등)
	대외봉사부	1.한인회, 한미 여성회, 한인학생회 지원및 협력하여 투산 지역 섬김 (한인회, 한미 여성회, 한인학생회 음식지원) 2. 노인잔치(설, 추석, 추수감사절 등) 3. 어버이 일일 관광 4. 지역 의료 봉사(국내 선교부와 협력) 5. 지역 사역 관리 및 협력
봉사사역 2팀	심방부	각종 심방지원(등록, 생일, 백일, 개업 등)
	경조부	교인들의 각종 경조사 관장 및, 지원 각종 경조사 관련 행사주관
	상담부	상담 - 신앙, 결혼, 장례 등 상담 주관(담임 목사와 상의)
재정팀	재정부	1. 교회 재정 운용 관리 실무 2. 재정 청원 감수 및 처리 각종 공과금 납부 3. 재정출납의 증빙 서류 발행 및 보관
	회계부	헌금집계 및 관리, 회계 운용 및, 장부관리
	계수부	각종 헌금계수(주정, 감사, 십일조, 특별, 절기헌금, 선교) 헌금봉투 관리

팀	부서	사역
행정지원팀	총무부	1. 교회의 각종 행사 주관 (교회창립, 각종절기, 부흥회, 수련회 등 각종시상) 2. 홍보출판부-요람 만들기, 교회 생활 안내서 만들기 3. 서무행정 및 각종 문서관리 4. 사업관계 처리 5. 각 팀 활성화와 도움 요청에 대한 행정적 지원
	성전관리사역부	1. 관리 및 유지(전기,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냉난방 등) 2. 교회 대청소 실시(각 목장별 당번 배정) 3. 각종 비품 구입 및 관리(화장실, 휴지통, 주방비품, 기타) 4.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 관리, 처분(당회의 위임) 5. 각 팀이 활성화와 여러 가지 도움 요청에 적극적 지원
	체육관관리사역부	체육관 관리 및 유지, 보수
	차량사역부	차량안내 및 정리, 주차장 관리, 교회 주변 청소 (주일, 부흥회, 새 생명 축제 등 각종 행사시)

특별부서	사역
투산한미문화교육센터	1. 한글학교 운영(교사확보, 교재준비, 홍보, 모집, 운영) 2. 방과후 교실 운영-숙제지도, 특별활동(악기, 미술, 요리 등)

특별부서	사역
한글학교	1. 한글학교 운영(교사확보, 교재준비, 홍보, 모집, 운영) 2. 방과후 교실 운영-숙제지도, 특별활동(악기, 미술, 요리 등)

위의 표는 투산영락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역팀과 부서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이 표는 각 부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성숙한 성도들이 자신의 형상에 따른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강문석, 이주영. *개인 전도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2.
- 김명남. *바나바사역 운영지침서*. 서울: 바나바교육원, 1998.
-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김상현. *전도중심교회*. 개정 6판. 서울: 프리셋트, 2007.
- 김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 김점옥. *차세대 한국 교회의 모델*.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 김창준.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 훈련: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 김학중.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라*. 개정 13판. 서울: 나침반출판사, 2000.
- 나점일. *전도마을 만들기*.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 _____. *전도 집중 교회로 만들라*. 서울: 두란노, 2003.
- _____. “교회역사,” 미출판 게시물. 2012년 2월 27일 인용. Online: http://w2.juan.or.kr/2_2a.asp
- 나원용. *전도는 이렇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류영모. *꿈대로 되는 교회*. 개정 5판. 서울: 나침반, 2000.
- 명성훈. *교회 개혁의 원리와 전략*. 개정 6판. 서울: 국민일보, 1999.
- _____. *교회성장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 _____. *뒷문을 막아라*. 개정 4판. 서울: 크레도, 1996.
- _____. *명품 교회성장*.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 민경설. *전도의 다이내믹*. 서울: 선교 햇불, 2003.
- 박건. *현장에서 본 새들백교회*. 재판.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9.
-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사랑의 교회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 박상천. “교회부흥을 위한 문화 전략에 대한 연구: 김해중앙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 박영덕. *높아진 문화 명령 낮아진 복음 전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박용희. “이민 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 전략 : 토론토 지역을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 박종순. *21세기의 도전과 성장 목회*.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8.
- _____. *전도, 하면 된다*. 서울: 홍성사, 1989.
- 서정운. *교회와 선교*. 개정 7판. 서울: 두란노, 1994.
- 사랑의 교회 (편). *새천년을 새 생명과 함께*.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9.
- 오정현, “역사.” 미출판 기사물. 2012년 2월 27일 인용. Online:
http://info.sarang.org/frameindex.asp?url_flag=/info/010101_history_5.asp
- 이계준 (편). *현대 선교 신학*. 서울: 전망사, 1992.
-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이명희. *전도학 개론*. 서울: 보이스사, 2006.
- 이반석. “전도동력화를 통한 효과적인 새 신자 정착방안: 제자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개정 7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이종윤 (편). *한국교회 진단과 그 처방*. 서울: 요단, 1996.
- 임택진 외. *전도할 수 있습니까?*. 개정 2판.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2.
- 조용기. *교회성장, 진정 원하십니까?*. 서울: 서울서적, 1995.
- 조은태. *전도학 총론*. 개정 2판. 서울: 타문화권목회연구원, 2006.
- 진송희. *바울 능력전도*. 안산: 이미지, 2005.
- 최준혁. “관계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전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5.
- 하용조 (편).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Vol. 18. 서울: 두란노, 1997.
- _____.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개정 2판. 서울: 두란노, 2007.

2. 번역서적

- Autrey, C. E. *기본 전도학 (Basic Evangelism)*. 정진황 역. 서울: 요단, 2000.
- Ahn, Che. *강력한 능력 전도의 비결 (Fire Evangelism)*. 곽정남, 김도현 역. 서울:

순전한 나드, 2006.

Bast, Robert L. *새신자를 끌어라 (Attracting New Members)*. 김명남 역. 서울: 바나바교육원, 2000.

Bosch, David J. *선교신학의 패러다임의 변천 (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CLC, 2000.

Dawson, Dave. *효과적인 간증 (Effective Testimony)*. 네비게이트 역. 개정 5판. 서울: 네비게이트, 2004.

Gibbs, Eddie. *나는 교회 성장을 믿는다 (I Believe in Church Growth)*. 송용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0.

Green, Michael. *초대교회 복음전도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박영호 역. 개정 3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Gumble, Nicky. *알파 시작하기 (Telling Others)*. 알파코리아 역. 개정 5판. 서울: 서로사랑, 2004.

HTB. *알파코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라 (Maximizing the Potential of Your Alpha Course)*.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1994.

Hunter, George G. *잃은 양, 떠난 양, 버린 양을 찾아서 (How to Reach Secular People)*. 김양석 역. 서울: 프리젱트, 1999.

_____.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Church for the Unchurched)*.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Hybels, Bill.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Just Walk across the Room)*. 정성목 역. 서울: 두란노, 2006.

Hybels, Bill, and Mark Mittelberg.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한기웅 역. 개정 8판. 서울: 두란노, 2001.

Kuiper, R. B. *전도 신학 (God-centered Evangelism)*. 박수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Macchia, Stephen 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Becoming a Healthy Church)*.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Malphurs, Aubrey. *21세기 교회개혁과 성장과정 (Pouring New Wine into Old*

- Wineskins*).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6.
- Means, James.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Effective Pastors for a New Century)*. 배헌석, 김응국 역. 개정 4판. 서울: 나침반, 1998.
- Metzger, Will. *양보 없는 전도 (Tell the Truth)*.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 Murphrey, Buddy. *그물을 당겨라 (Drawing the Net)*. 정학봉 역. 서울: 동서남북, 1992.
- Petersen, Jim. *우리 세대를 위한 창의적 전도 (Living Proof)*. 네비게이트 역. 서울: 네비게이트, 1998.
- Rainer, Thom S.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 (The Unchurched Next Door)*. 이혜림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7.
- _____. *교회 성장 교과서 (The Book of Church Growth)*. 홍용표 역. 개정 3판. 서울: 예찬사, 2004.
- Scarborough, L. R. *그리스도와 함께 잃은 자를 찾아서 (With Christ after the Lost)*. 김태균 역. 서울: 달산, 1994.
- Strommen, Merton P. *교회혁신을 위한 7단계 전략 (The Innovative Church)*. 안성근 역. 포항: 예본, 2000.
- Sweeting, George. *전도의 비결 (How to Witness Successfully)*. 박제환 역. 재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Winter, Ralph D., and Steven Hawthorne, eds. *미션 퍼스펙티브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정옥배 역. 개정 7판. 서울: 예수전도단, 2002.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8.
- _____. *목적이 이끄는 사역 세미나*. 김성수 역. 강의안. Los Angeles, Summer 2005.
- Wood, Gene. *교회성장형 리더십 체크리스트 (Leading Turnaround Churches)*. 박원영, 김진기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2.

3. 외국서적

Barth, Karl. *Church Dogmatics*. 5 vols. Edinburgh: T&T Clark, 1962.

Bosch, David. "Evangelism: Theological Currents and Cross-currents Today."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1 (1987): 98-103.

Brunner, Emil. *The Word and The World*. London: SCM, 1931.

Vita of
Choong Yeol Jang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Tucson Young Nak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April 05, 1961
Marital Status:	Married to Sun Ja Jang with 2 Children, Hang Gil and Han Vit
Home Address:	10171 N. Colonial Pl. Oro Valley, AZ 85737 USA
Phone:	520-390-4447
Denominati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broad
Ordained:	May 7, 1996

Education:

B. A.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9
M. Div.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4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2

Personal Experience:

2004 to present:	Senior Pastor of Tucson Young Nak Church, Tucson AZ
1997 to 2001:	Assistant Pastor of Yumsan Presbyterian Church, Seoul
1993 to 1996:	Full-time Minister of Young Suk Presbyterian Church, Seoul